

17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56.81	↓ 코스닥	694.47
	(-32.16)		(-4.06)
↑ 금리 (미국 9년)	2.621	↑ 환율 (원-달러)	1438.95
	(+0.068)		(+3.95)



내년 예산 75% 상반기 배정... 민관 원팀 무역장벽 타개

‘탄핵정국’ 경제부처 긴급 대응
민간소비 위축, 수출 증가세 둔화
트럼프 2기 대비 韓美 협력 중요
정부-협단체-기업 실시간 소통
무역장벽 대응 민관협력체계 구축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초유의 정국 혼란 사태가 일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지표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부 역시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 최근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민간소비 등 내수는 12·3 계엄령 이전에 이미 위축을 지속해 온 데다 상반기에 정상 궤도에 오르는 듯 보이던 수출마저 3분기 들어 증가세가 둔화했다. 게다가 국내 정치 상황이 요동치는 와중에 미국 차기정부 출범이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휘부(컨트론타워)의 사실상 부재 속에 경제 관련 부처들이 진두지휘에 나서고 있다. 경제부총리 주재의 긴급 회의가 열흘 넘게 개최된 데 이어, 17일에도 안덕근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이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기업 간 적극 공조를 통한 불확실성 대응을 강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하며 내년도 예산 가운데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을 지원해 식여가는 내수경기를 최대한 진작하고 첨단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성장동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2019년 70.4%, 2020년 71.4%, 2021년 72.4%, 2022년 73%를 기록했고 2023년 75%로 확대한 뒤 올해와 내년까지 3년 연속 75%를 유지하게 된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산업부는 기업 지원의 최후 보루로서, 흔들림 없이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관 원팀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협단체-기업 간 실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려요인과 기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상호호혜적 한미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특히 수출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역금융 강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한 적극적 투자 및 외국인투자 유입을 위해 규제 개선·기업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환율상승에 따른 국내 에너지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 관련 일일 점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가 열렸다. 정 본부장은 “미국 신 행정부 출범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탄핵정국 관련기사 2·3·4면〉



75년 만의 만남

17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4·3희생자 고 양천종씨의 딸 양두영(94)씨가 아버지의 유해가 들어있는 함을 전달 받고 있다. 이날 제주로 돌아온 고 양천종 희생자는 1949년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체포돼 광주형무소에서 생을 마쳤다. 양 희생자는 광주 북구 옛 광주형무소터 무연분묘에서 2019년 12월 발굴된 261구의 유해 가운데 1구다.

/뉴스시

“금융 불확실성 선제 해소... 신인도 유지 총력”

BIS·FSC·BOK 공동 AI 컨퍼런스
김소영 “금융사 AI 활용정책 지원”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부문을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금융위원회(FSC), 한국은행(BOK)이 공동으로 개최한 인공지능(AI) 컨퍼런스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6년도에도 금융시스템 불안은 없었다”며 “지금은 더

견고한 시장 안정장치들을 가지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변동성이 확대된 금융시장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도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일 원·달러 환율은 1402원에서 16일 기준 1432.7원으로 2.19% 급등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불확실성이 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국내에 진행되는 행사를 정상적

으로 운영하는 등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융시스템 AI 활용지원정책 등 계획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금융사 내부망에서도 AI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공동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AI 개발 및 학습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

中 BYD의 위협... 日 이어 국내 안방 넘본다

(전기차업체)

BYD코리아, 6개 딜러사 선정 완료
현대차그룹과 경쟁, 가격이 관건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급성장한 중국 전기차업체 비야디(BYD)가 한국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BYD에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는 안방까지 위협받게 된 상황이 됐다.

실제로, 수년간 일본 전기차 시장에 공들인 현대차는 현지 시장에 전격 진출한 BYD에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BYD의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BYD코리아는 BYD 승용차의 판매를 담당할 딜러 파트너사로 DT네트웍스, 삼천리이비, 하모니오토모빌, 비전모빌리티, 지엔비모빌리티, 에스에

스모터스 등 6개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딜러로 선정된 6개사는 내년 초 BYD 승용차 브랜드 출범 후 국내에서 BYD 승용차에 대한 판매 및 AS 서비스, 고객 관계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DT네트웍스는도이치오토모빌 그룹의 자회사로 서울 서초를 중심으로 경기도 수원과 분당, 고양, 부산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입차 판매 1위인 BMW의 성공을 이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BYD의 한국 시장 공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삼천리이비는 서울시 양천구를 비롯해 경기도 안양시와 인천을 공략할 방침이다. 하모니오토모빌은 서울시 강서와 용산, 제주시를 담당한다. 비전모빌리티는 광주 서구와 대전 동구, 지엔비모빌리티는대구수성구, 에스에스모터스는 강원도 원주를 맡는다.

BYD는 현재까지 진출한 전세계 99개 국가와 지역에서 모두 딜러 체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전기차를 처음 접하는 고객들에게 대면 방식을 통해 전기

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정확한 이해를 돕고, 전기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고객 체험의 질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 사업부 대표는 “한국 고객들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가를 우선 가치로 두고 6개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딜러 선정이 완료된 단계로, 권역별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개소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추후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우원식, 경제4단체장 만나 “미·일·중·EU 등에 의장 특사 파견할 것”
▲ 이재명,尹탄핵 가결 후 ‘대장동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사진 뉴스스)

▲ 박찬대 “윤 탄핵에도 할일 점점산중... 책임자 엄벌·민생 입법 신속해야”
▲ 정부 “韓 권한대행 트럼프 취임전후 방미 검토, 구체적 단계 아냐”



▲ 천하람 “권성동, 재판지연 내로남불...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 오세훈 “‘상왕 놀이’ 심취한 이재명, 경제·정치 최대 리스크” (사진 뉴스스)

시중은행, 내년 대출문턱 낮춘다 코픽스 하락에 금리도 인하할 듯

신한·국민, 주담대 한도 1억→2억
하나·우리, 주담대 등 비대면 판매
은행채 5년물 금리 2.974%로 하향
코픽스 10월 3.4%→이달 3.35%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높여왔던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올
해 대출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제
한하던 것을 내년 초 실행 건에 한해 완
화하고 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
용지수)도 소폭 내리면서 금리도 인하
할 전망이다.

◆ 주담대 한도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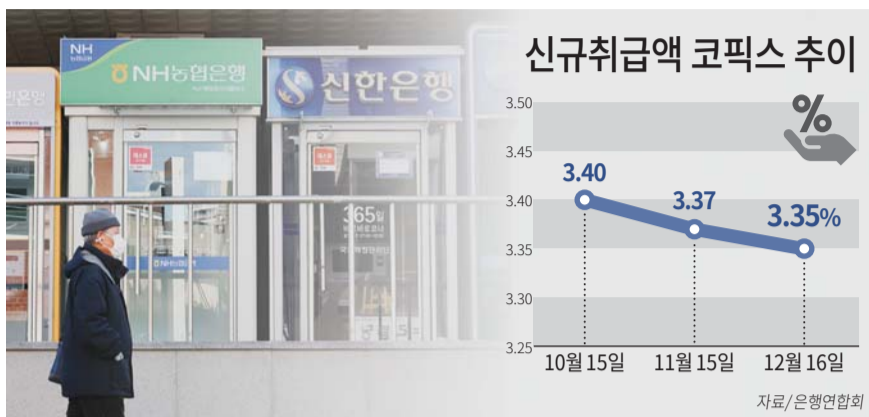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
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그동안 중단했던 주택담보대
출의 모기지신용보험(MCI)을 재개하
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접수도 다시 받
는다.

전세자금대출은 제한했던 신규분양
미등기 건과 1주택 보유자 건도 취급한
다.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았던 비대
면 신용대출도 재개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제
한했던 가계대출 중 일부를 완화하기
로 결정했다”며 “대출실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담보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시작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대출을 완화하는 것은
연간단위로 설정되는 은행별 대출 총



량 목표치가 새해를 맞아 재설정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
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부터 대출을 완화하는 은
행도 있다.

국민은행은 15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다른 은행 주택담보
대출로 갈아타는 것(타행 상환 조건부)
을 허용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3일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비대면 아
파트·연립·다세대 우리WON주택대출
과 우리WON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한
다.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도 허용한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가계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대출 총량 조절에
여유가 생긴 경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빠르게 가계부
채 관리를 강화해 가계대출이 상당부
분 감소했다”며 “연말부터 일부대출을
받더라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게 돼

일부 취급 상품을 종료하게 됐다”고 말
했다.

◆ 대출금리도 소폭 ↓

가계대출 문턱이 완화되는 가운데,
금리도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정형 주택
담보대출 금리의 기본이 되는 은행채
(무보증·AAA) 5년물 금리는 지난 ▲
10월초 3.159% ▲11월초 3.304 ▲12월
16일 2.974%로 낮아졌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본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
수)도 내렸다.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공
시일 기준 ▲10월 15일 3.4% ▲11월
15일 3.37% ▲12월 16일 3.35%로 떨
어졌다.

앞서 은행들은 은행채와 코픽스 금
리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가산금리를 높였다. 은행이 대출 문턱
을 낮추고 있어 인하된 금리에도 대출
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들
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개인·외국인, 증시하락 ‘韓 인버스’ 투자

기관은 한국증시 상승에 배팅
개인·외국인-기관 ‘반대 행보’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
후 들어선 탄핵 정국에 개인 투자자
와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증시 하락
상장지수펀드(ETF)에, 기관은 한
국 증시 상승에 배팅한 것으로 나타
났다.

17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지
난 16일 하루 동안 자금 거래량 상위
(1~5위)에는 모두 인버스·레버리지 E
TF들이 이름을 올렸다. 기간을 최근
거래일10일로 넓혀 잡아도 국내 증시
인버스·레버리지 ETF의 거래량이 압
도적으로 많았다.

다만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개인과 외
국인의 행보와, 기관의 행보는 서로 반
대를 향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기관은 기초지
수인 코스닥150 지수의 일별수익률을
2배씩 추적하는 ETF인 ‘KODEX 코
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220억원을
순매수했으며, 기초지수의 일별수익률
을 매일 2배수만큼 추적하는 것을 목표
로하는 ‘KODEX 레버리지’도 163억
원가량 사들였다.

반면 개인은 같은 기간 코스피200지
수 움직임에 역방향으로 2배 배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 ETF를
130억원 매수했고, 외국인은 이를 91억
원치 사들였다. 또한 외국인은 코스닥
주가하락에 배팅하는 ‘KODEX 코스
닥150선물인버스(코스닥150 선물 지
수의 일일 수익률을 역으로 추종하는
ETF)를 하루에 25억원 추가 매수하기
도 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여전히 한국 증시
가 저점에 다다르지 않았다고 보고,
인버스 ETF를 사들이는 것으로 풀이
된다.

실제로 17일 종가 기준으로 KODE
X 레버리지 ETF는 전일대비 345원(-
2.33%) 하락한 1만4450원을 기록했으
나, KODEX 200선물인버스2X ETF
는 전일대비 55원(+2.25%) 오른 2495
원으로 장을 마쳤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치이슈로 증
시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큰 폭의 반등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
오고 있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에 연동되는 모습으로 단계적으
로 반등할 수 있으나 여전히 한국 수출
모멘텀 둔화와 2025년 트럼프 정부의
수출 규제 및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 등
이 상존하기에 큰 폭으로 반등하긴 쉽
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

/손진영 기자 son@

은행 막히니... 2금융권 가계대출 3.2조 ↑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영향
내년 은행권 대출기준 완화 전망

은행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2금융권을 찾는 차주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은행권이 대출 기
조를 완화하고 2금융권이 건전성에 고
삐를 쥐면서 ‘풍선효과’가 해소될 전망
이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여신잔액은 181
조4406억원이다. 전월(180조2293억
원) 대비 1조2113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의 여신잔액은 391조
1962억원으로 5521억원 상승했다.

한달새 2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
2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2조7000억원
대비 상승폭이 5000억원 증가했다. 특
히 지난 11월 주택담보대출은 2조6000
억원으로 전월(1조9000억원)과 비교
하면 상승폭이 가파르다. 상호금융사
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사와 보험사가
각각 6000억원씩 늘었으며 저축은행은
40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2금융권으로의 대출 쏠림 이
어지는 배경에는 스트레스 DSR(총부

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 시행이 2개월 연기되면서
은행권이 ‘막차 수요’를 흡수한 것. 금
융당국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 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여신 관리를 강화할 것
을 주문했다.

이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한달새 5조1000억원 증가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
계대출은 증가폭이 진정된 반면, 2금융
권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은행
권을 웃돌았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BYD, 올해 전기차 일본 판매율 72.5% ↑

>> 1면 ‘中 BYD의 위협...’서 계속

BYD코리아는 승용차 브랜드에 대
한 국내 사업성 검토를 마치고 2025년
1월을 목표로 BYD 브랜드의 국내 공
식 출범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한편 현대차와 BYD는 일본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BYD가 현대차를 가볍게 따돌린 상태
다. 현대차는 지난 2022년 13년 만에 재
진출한 일본 시장에서 올해(1~11월)
561대를 판매했다. 지난해(1~12월)
465대 판매했던 것과 비교하면 12월 판매
집계가 남았음에도 100대 이상 더 판매

한 수치다. 이처럼 현대차가 선전했으
나 BYD는 일본에서 올해 11월까지
2134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72.5% 증가한 수치다.

김필수대림대학교자동차학과 교수
는 “BYD 전기차는 종류도 많고 품질
경쟁력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
을 마쳤다”며 “한국 시장 공략의 승부
처는 ‘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지난달 대미 수출 16개월 사이 첫 감소

>> 1면 ‘내년 예산 75% 상반가...’서 계속

이번 회의에는 유관기관(외교부, 농
림부, 특허청, 식약처, 관세청 등), 업종
별 협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산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무
역협회의 경우, 미국발 초국경보조금,
유럽연합(EU)발 역외보조금 등 새로
운 유형의 무역장벽에 대한 대비가 시
급하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정점을 찍고 다시
내리막길을 걷는 모양새다. 관세청이
전날 발표한 ‘11월 수출입 현황’에 따
르면 지난달 총수출액은 563억 달러로
전년동월에 비해 1.4% 늘어나는 데 그
쳤다. 특히 미국시장 수출액이 103억
8000만 달러로 5.2% 감소했다. 1년 전
에 비해 미국 수출액이 줄어든 것은 16

개월 사이 처음이다. 대 중국 수출액도
전년대비 0.7% 줄어 9개월 만에 감소
로 돌아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가 작년보다 각각 1.
3%, 1.6% 늘어나는 데 머물 것으로 보
고 있다. 건설투자의 경우 역성장(-
1.8%)을 예측했다. KDI는 내년 수출
전망도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 내년 수
출 증가 폭이 올해(+8.8%) 대비 크게
둔화(+1.8%)할 것이라 예측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은 “정부가 추진력을 잃어버린 상황
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또는
기각) 결정 전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잘해야 내년 예산의 조기집행률을
높이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尹, 군정 자금마련 지시했나... 최상목 “동의할 수 없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위헌안질의 野, 지난 3일 밤 메모 지적 최 부총리 “참고사항일뿐 경제 정상궤도 오르면 사임”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메모에는 ‘계엄군의 군정(軍政)을 위한 자금 마련’에 대한 지시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 부총리는 메모의 존재는 이미 밝힌 바 있으나 17일 이 같은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최 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받은 문건 내용이) 계엄 관련 해 예비비 등 관련 재정자금을 확보하라는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계엄군사령부가 군정을 이어가기 위한 자금을 준비하라는 취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내 국무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해당 문건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일 뿐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실무진이 ‘참고하라’고 준 문건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다”라며 “당시에

경향도 없었고 제가 이미 계엄에 반대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 관심도 없고 열어볼 의사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

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동시에 제 개인의 거취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르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중 75%를 상반기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 생계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

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2019년 70.4%, 2020년 71.4%, 2021년 72.4%, 2022년 73%에서 2023년 75%로 증가한 후 올해와 내년까지 3년 연속 75%를 유지했다.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소요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논란

與 “대통령 직무정지시 권한대행 임명 불가” 野 “터무니없는 말장난... 절차 지연작전”

입장차 뚜렷... 탄핵정국 2라운드 예고

여야가 국회 뒤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추천을 완료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가능성을 놓고 이견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지난 10월 국회 뒤편 헌법재판관 3인이 퇴임해 현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변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결정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인 체제의 경우 탄핵심판이 인용을 위해서라면 이론상 재판관 만장일치를 이뤄야 한다.

야당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무게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관 구성을 완전하게 정리해 추후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3~24일 3인의 후보자 청문회를 마치고 30일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의힘은 서두를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결론부

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즉각 권 원내대표 주장을 “터무니없다”며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며 “지금 공석인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란다”며 “윤석열의 위법, 위한 내란행위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덧붙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이미 다 협의된 내용이고 헌법재판소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관련해선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 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뉴시스

경제4단체 “기업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우원식 국회의장 간담회 대외신인도 제고 등 국회 역할 요청 “여야, 기업 지원법안 머리 맞대야”

경제4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탄핵 정국에 따른 대외신인도 제고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4단체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초청했다.

경제4단체 대표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숙고를 거쳐야 한다는 우려를 전했다.

우 의장은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 의장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경제 관련) 비쟁점 법안들 70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번 연말에 처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국회에서 통과하려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긴박한 정치 상황으로 경제계 목소리가 사라졌다”며 “오늘 경제계 속앓이를 말해주면 여야, 정부가 함께 해법 모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다. 최근 상황에도 국가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 평가가 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가가 있다”며 “성장을 저하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거시지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거시지표 안정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최 회장은 “비즈니스는 어느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다. 기업 경영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여야 모두 민생안정의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무쟁점 법안을 연내 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잘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준다면 기업들이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편, 기업의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신중

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 “기업이 직면한 위기는 국민의 삶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께서 목소리를 살피준다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이번 사태 이후 수출업계 중심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해봤다. 그 결과 기업들이 가장 애로로 느낀 것은 환율 불안정이었다. 50% 이상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라며 “두번째는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기업의 대외활동의 저해가 20% 이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윤 회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20일에 출범한다. 그것에 따라서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관세폭탄 등을 예상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도 나름 각고의 노력을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대미 친선 의원외교도 같이 해주면 무역 업계도 상당히 힘을 받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민생법안과 세법 개정안 중 여야가 이견이 없는 내용이 있다”며 “예를 들면,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전통신장 카드 사용 소득공제율 상향 등 여러 사항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여야, 초당적 협력보단 갈등 심화... 국정안정협의체까지 분열

거부권 행사 등 이견에 '신경전'

우원식, 내란·김건희 특검법 정부 이송
與,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압박
野, 거부권 행사 시 탄핵 가능성 제기
오늘 권성동·이재명 대표 예방 예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탄핵소추단, 초당적 국정안정 협의체 등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내란 일반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두 개의 법률안과 농업 4법 개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두고 거부권 행사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당은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거부권을 쓰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며 "거부권 행사는 행정부 행정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고 했다.

추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으면 거부권 행사 권한도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민주당

이 답을 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례가 있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안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장으로,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는다고 했다. 이외에도 박범계, 이춘석, 이성운,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합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 1명이다. 이외 나머지 탄핵소추위원단은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사위원장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위원일뿐, 나머지 탄핵소추위원단들은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역할한 부분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을 내란죄의 공범으로 적시하고 마치 계엄 선포와 해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 짓게 발의됐다"라며 "민주당이 추진 원내대표까지 내란죄 공범으로 하는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반대 당론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초당적 국정안정 협의체도 국민의힘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주부터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상임 위원회별 실무 당정 등 현안별 각급 당정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며 이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이 대표를 예방한다. 얽히고 설킨 현안들을 풀어낼 수 있을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단순한 인사나 덕담을 주고 받는 자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한덕수 권한대행 "새해 첫날 예산 즉시 집행... 상반기 재원 총동원"

탄핵안 가결 이후 첫 국무회의 양곡관리법 등 6개법안 상정 보류 국회-여야 소통 통해 해결책 모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줄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 및 직무정지 이후 처음 열렸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등 6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기한이 남아있는 한 국회와 더 소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의 동의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관계 각료와 한국은행 총재 등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금융·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

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일관된 정책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챙겨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장관들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되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줬으면 한다"며 "민생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이 변함없다는 점 등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단통법 폐지·AI 기본법 통과... 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사위, 전체회의서 법안 심의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인공지능 정의·윤리 원칙 등 규정
교사 반대·학습 저하 우려에 결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과 AI(인공지능) 기본법을 통과했다. 또한, 법사위는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심의해 본회의로 넘겼다.

단통법은 휴대폰을 살 때 공시지원금 이외의 보조금 지원을 금지시킨 것이 핵심이다. 일부 소비자만 이른바 할인폭이 큰 '성지'에 찾아가 차별적인 혜택을 누리는 상황을 규제하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추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소비자가 기기를 더 비싸게 구매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단통법 폐지는 4·10 총선 공약공약이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삶의 필수 조건이 되는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며 단통법 폐지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단통법 폐지로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것이 골자다.

이날 함께 통과된 AI 기본법은 인공지

능 정의 규정,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정기적 인공지능 기본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 상품·서비스 사업자의 사전 고지 등을 담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규제에 관한 기초 내용을 담았다.

AI 기본법의 경우 정청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이 발언대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행위에 관계된 인공지능 개발 활용 학습데이터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법안이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법사위에 올라가게 돼서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가운데 호소를 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이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도 소통했다"며 "오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리해서 문체부와 이견이 해소됐다고 통지받고 말씀드린 상황이다"라고 했다. 유 장

관은 "문체부 국장이 위계를 안 맞추는 것 같다. 정당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 다시 묻자 정 국장은 "(학습데이터 목록을) 공개하는데, 공개 대상이 아닌 방법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왜 공개해야 하나"라고 묻자 정 국장은 "학습데이터의 저작권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학습데이터 활용 여부에 대해서 창작자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다"며 "AI업계도 국제적 규범에 따라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 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학계의 우려가 있어서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상황을 보면서 후속 입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제정법에는 모든 걸 담아서 하면 기본법 제정이 어려워진다. 이외 사항은 후속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과방위 입장"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일단 제정법을 통과시키고 미진하거나 부족 부분이 있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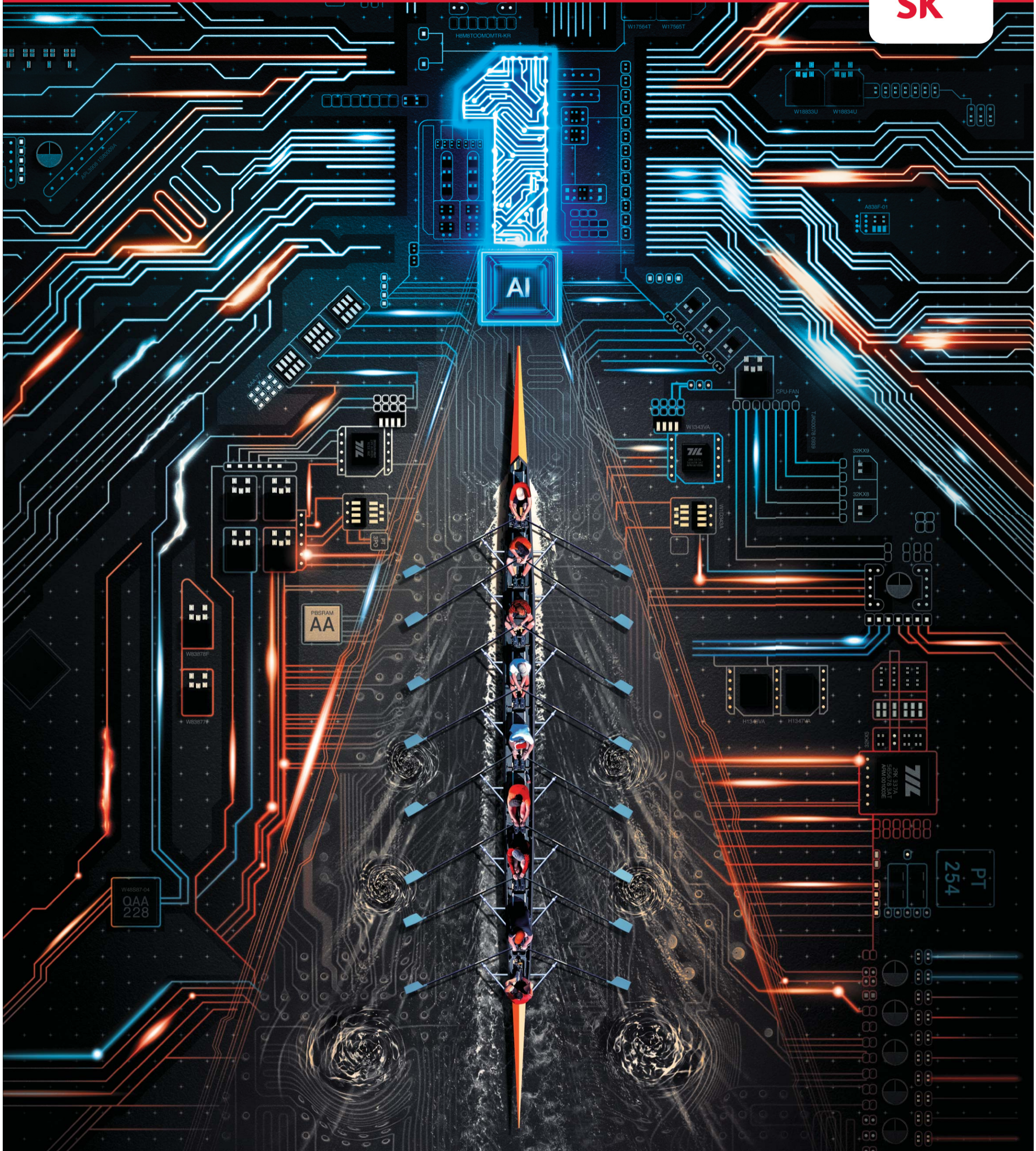
개정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 법은 개발차하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미 여러번 문체부의 입장은 저작권법 개정 추진이었다.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기에 때문에 기본법에선 가급적 규제는 담지 않고 문체부뿐 아니라 개보위 등 규제 관련해서 차후 각 부처에서 하는 걸로 합의를 본 내용인데 안타깝다. 국장의 의견이 너무 강하다"라고 했다.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여야 이견 끝에 처리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다수 교사들의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반대 ▲AI교과서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교육현장 혼란 ▲문해력 저하로 인한 학습성과 저하 등을 이유로 AI 교과서 도입을 반대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4000억원 달하는 대규모 예산으로 대규모 연수 ▲수동적 교육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전환 ▲교육자료로 지정할 경우, 채택 여부에 따라 격차 증대 등을 이유로 AI 교과서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원팀으로 AI시대를 여는 FIRST MOVER

경기침체에 미분양 늘어... 건설부동산 시장, 내년도 '먹구름'

건설사 21곳 내년 매출 107兆 전망
올해 예상치 112.6兆 보다 밀돌아
건축허가 면적, 전년비 11.7% 줄어
지난 10월 준공 후 미분양 '최대치'
2026년부터 실적개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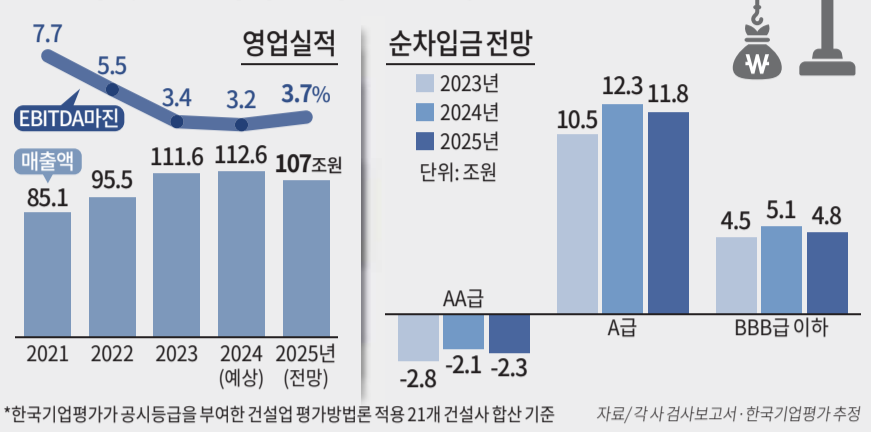
올해에 이어 내년 건설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둡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 수요 역시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다.

17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공시 등급을 부여한 건설사 21개사의 내년 매출 전망치는 107조원으로 올해 예상치 112조6000억원을 밑돈다.

건설투자 선행지표 역시 부진하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건축허가 면적은 올해 3분기 누계 기준 9100만㎡로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했다. 건축착공면적도 5800만㎡으로 2018~

건설사 영업실적과 순차입금 전망



2022년 연평균 대비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김창수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선행지표의 부진한 흐름을 감안하면 2025년 건설투자는 올해 대비 저하될 것"이라며 "국내 건설산업에서 민간 공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신규수주 둔화로 영향 저하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신평사들의 내년 건설업에 대한 신용 등급 전망은 모두 '부정적'이다.

아직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 미분양에 따른 부담은 커졌다. 올해 분양물량 자체는 늘었지만 민간아파트의 평균 초기분양률은 2023년 4분기 86.3%에서 2024년 2분기 64.2%로 하락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10월 1만8000호로 2020년 9월 이

후 최대치다.

최한승 한국기업평가 기업2실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 채무 감소 등으로 과거와 같이 단기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장기 미분양 프로젝트에 따른 재무부담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건설산업 제반 환경이 악화되면 서 업계 전반의 등급 하방 압력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사업유형이나 지역별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업체들 간 실적이나 신용도의 양극화가 심해질 전망이다. 한기평은 수익성 개선 여부와 함께 차입금 수준, 신규수주 규모 등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실적개선은 오는 2026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설사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세가 가팔랐던 2021년~2022년경

착공한 것들이다. 원가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영해 수주한 2023년 수주 물량들이 2026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최 실장은 "내년 건설업 신용도는 건설사들이 미분양에 따른 운전자본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데 여부에 달렸다"며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건설업황 저하 시기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됐던 분양들이 오히려 건설사 손익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물량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올해 10월 기준 21%를 기록 중이다. 수도권 사업장은 전체 비용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미분양이 발생하면 지방사업장보다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원가 상승분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전반적인 건설 경기가 살아야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셀트리온그룹, CDMO 사업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대

(위탁생산개발)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스 출범
의약품 개발 전체 주기 서비스 제공
2028년 20만리터 인프라 구축 목표

셀트리온그룹이 낮은 증설 비용, 높은 생산성을 강점으로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 사업을 본격 펼치며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기업 영향력을 대폭 넓힌다.

17일 셀트리온그룹에 따르면, 이날 CDMO 전문기업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스'가 100% 셀트리온그룹 자회사로 출범했다.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스는 신약 후보물질 선별부터 세포주 및 공정 개발, 임상시험 계획, 허가 서류 작성, 상업 생산까지 의약품 개발 전체 주기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는 모기업인 셀트리온그룹이 앞서 지난 2002년 일찍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을 전개하며 글로벌 제약사들과 함께 축적해



17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셀트리온그룹

온 다양한 사업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서비스 핵심 기반이 되는 생산시설을 순차적으로 확장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는 오는 2028년 국내에 최대 20만리터 CDMO

인프라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오는 2025년 상반기 10만리터 규모의 1공장 건설을 시작한다. 이후 1공장, 2공장, 3공장 등을 순차적으로 증설하는데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는 증설 비용을 10만리터 기준 8000억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경쟁사 대비 3분의 2 수준이며, 공사 및 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후우도 갖춰 보다 빠르게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단계별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는 매출 기대치도 단계별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는 2025년 CDMO 공장 착공과 함께, 위탁개발(CDO) 및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사업을 우선 개시해 2027년 1000억원의 매출을 내겠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CMO 사업은 2028년 본격적인 상업 생산으로 2029년 50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30년에는 CDO 및 CRO 사업은 5000억원, CM

O 사업은 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2031년에는 CDO 및 CRO 사업과 CMO 사업이 각각 1조원, 2조원 등의 매출 성장이 이뤄진다.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는 2030년부터 20만리터 생산 시설이 전체 가동되는 경우, 영업이익률은 30%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1만리터당 최소한 1000억원의 매출을 내도록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영업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의 신규 생산시설 내에는 대·소형 배양기가 다중 배치되면서 대량 생산은 물론, 급변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현장에 발맞춰 향후 항체물질접합체(ADC)를 비롯해 다중 항체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펩타이드 신약 등 차세대 혁신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진다.

서정진 회장은 "단계별 증설과 단계별 매출을 기약한 이유는 불필요한 과

잉 투자에 대한 대응"이라며 "과잉 투자는 영업이익률 저하 요인이 된다. 실적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기업 저평가 굴레를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단계에 해당하는 2025년 10만리터 착공은 셀트리온그룹에 먼저 필요한 것"이라며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의 가장 기본 고객은 셀트리온그룹이기 때문에 과잉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투자는 최대 3조원인 가운데 셀트리온그룹은 절반인 1조500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조달한다. 나머지는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셀트리온그룹은 외부에서 투자 비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셀트리온그룹의 투자 비중이 전체 투자의 50% 수준을 유지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가 100% 셀트리온 자회사로 설립된 만큼, 향후 셀트리온 기업 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바이오솔루션스 대표이사는 의약품 개발, 임상, 허가, 생산의 경험을 모두 갖춘 이혁재 셀트리온 수석 부사장이 내정됐다. /이청하 기자 mlee236@

外人 근로자 37.1%, 월급 300만원 이상 받아

통계청 '이민자 체류 실태·고용조사'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은 급여로 월평균 300만원을 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사에서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임금근로자는 95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 3000명 증가했다. 월평균 임금수준은 200만~300만원이 48만 9000명(51.2%)으로 절반을 넘었다.

30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외국인은 35만 4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7.1%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3% 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또 200만원 이상 임금을 받는 외국인도 전체 근로자의 88.3%에 달했다.

100만~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외국인은 8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6000명(-6.5%) 감소했다. 1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역시 3만 2000명으로 0.4%p 줄었다.

귀화허가자의 임금근로자는 2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1000명 감소했다. 월평균 임금수준은 200만~300만원

이 1만 2000명(0.8%), 300만 원 이상이 7000명(3.9%), 100만~200만 원이 6000명(-4.9%)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중 실업자는 3개월 미만인 3만 5000명, 3개월 이상이 2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3개월 미만 실업자는 지난해보다 0.1%p 감소했지만 3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0.1%p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49만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5000명 증가했다. 사유로는 육아가사(14만 9000명), 정규 교육기관 통학(13만 6000명)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득이나 직업, 주거 환경 등 대체로 한국 생활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외국인 근로자 84.3%가 한국 생활에 대해 만족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업부, 전량 수입 반도체 부품 국산화 꾀

시노펙스 동탄공장서 준공식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세정 공정용 나노(nm)급 필터의 국내 생산 공장이 준공됐다. 이 필터는 반도체 세정용 화학물질에서 불순물을 정제하는 역할을 하며, 그 성능은 반도체 수율과 직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나노급 필터 생산 기업인 시노펙스의 동탄공장에서 반도체 나노필터 신규 생산 라인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선평의 미세화에 따라, 초미세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세정 공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간 세정 공정의 핵심 부품인 나노급 필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이번 생산 라인 준공으로 국내 수요 100%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가진 공장을 국내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시노펙스의 성과가 수요-공급 기업 간 상생 협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내 반도체 세정 장비 업체들은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시노펙스에 기술 개발을 요청했으며, 이에 시노펙스는 국내 장비 업체에 고품질 나노 필터를 공급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탄핵정국에 캠코·기보 등 금융 공기업 연말 인사 올스톱

금융위 인사 절차 일시 중단
기관장 후보군도 불투명해져
기존 기관장 업무대행 가능성

‘탄핵 정국’ 여파가 금융 공기업 최고 경영자(CEO)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다수 금융 공기업 기관장이 임기를 마쳤거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탄핵 정국으로 후임 기관장을 추천 및 검증해야 할 정부와 대통령실의 기능에 차질이 생기면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연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인사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의 교체 포함 이번 인사는 지난 7월 말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첫 인사가 될 예정이었다.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위 산하 공기업의 기관장 인선에도 그 여파가 미쳤다. 금융위 인사가 중단되면서 기관장 후보군이 불투명해졌고, 후보자를 검증 및 최종 승인해야 할 대통령실



부산 남구 문현동금융단지 전경. 문현동금융단지에는 캠코,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이 다수 밀집해 있다. /뉴스1

의 직무도 정지되면서다.

정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은 각 주무부처의 장관이 후보자를 제정하면 대통령실이 이를 검토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장으로는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 등 정부 출신 인사나 정치권 인사가 주로 부임하는 만큼, 공기업 인사

는 총선이나 주무부처의 인사와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잦다.

권남주 캠코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오는 1월로 임기를 마친다. 관련 법령이 기관장 임기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추위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금융위 인사와 맞

물려 후임자가 결정될 것이라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아직 임후보조차 마치지 못했다.

기술보증기금·한국벤처투자·창업진흥원 등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최근 기관장의 임기가 잇따라 종료됐지만, 후임자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017년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었으며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 만큼 금융위의 영향력도 여전하다

후임 기관장 결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실제 업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존에도 임기가 만료된 공기업 기관장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기존 기관장이 업무 대행을 이어가는 경우가 잦았다.

지난 9월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최고준우 전 사장의 임기 만료 8개월 만에 새 사장이 부임했고, 코스콤도 홍우선 전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 10개월 만에 새 대표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다만 비상계엄 여파로 각 정부 부처가 비상 체제로 돌입하면서 인사의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려났고,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로 대통령실의 기능도 정지한 만큼 인선 지연은 길어질 전망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인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기술보증기금 기관장 선임을 강행한 바 있지만, ‘알박기’ 논란 속에 1년 만에 불명에 퇴진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혹은 차기 대선 이후에야 금융 공기업 인선이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금융 공기업 관계자는 “통상 임추위 구성 이후 후보 접수와 검증, 추천 등 절차에는 2~3개월이 소요되는데, 해당 절차를 끝마치더라도 임명권자인 대통령 재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여러 기관이 비슷한 상황으로, 당분간은 현 기관장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AI가 미래”... 보험사, 디지털 역량 제고

한화생명, 생성형AI 활용 혁신 주도
고객맞춤형 화법·대화 솔루션 개발
교보생명, 생성형AI 보장분석서비스

보험업계가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와 함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다. 현재의 고객 경험 개선은 물론 가치 투자를 통해 미래 수익성까지 이어가겠다는 포석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금융사의 10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보험사 중에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선정됐다.

한화생명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했다. ‘고객맞춤형 화법 생성 및 가상대화 훈련 솔루션’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혁신성과 소비자 편의성을 인정 받았다.

보험설계사는 해당 솔루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객 상담을 준비한다. 가상대화를 통해 실전 같은 상담 훈련으로 역량을 향상할 수 있다. 고객 맞춤형 화법 생성으로 맞춤형 상품 안내를

통해 고객 만족도도 높였다.

앞서 한화생명은 지난 2014년부터 빅데이터 TF를 설립하고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AI를 보험산업에 접목해왔다. 올해 6월엔 AI연구소도 출범시켜 AI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혁신 전략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달에는 글로벌 AI 역량 강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위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AI센터를 개소했다. AI 산업의 중심지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생태계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현지 유수 대학, AI 스타트업, 투자사 등과의 활발한 네트워킹 및 협업에 나선다.

한화생명은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AI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2014년부터 10년 넘게 AI 연구에 투자해 2020년부터는 매년 AI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디지털 혁신과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도 ‘생성형 AI 활용 보장 분석 서비스’를 개시했다. 해당 서비스로 고객의 상담 시간을 단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장 내용 제안에 나선다.

또한 교보생명은 최근 정기인사에서 AI활용·VOC데이터담당 겸 그룹경영 전략담당으로 신중하 상무를 선임했다. 신 상무는 신창재 교보생명 이사회 의장의 장남으로 그룹디지털전환(DT) 지원담당, 그룹데이터전략팀장을 맡은 바 있어 교보생명의 미래 AI 혁신을 이끌 예정이다.

금융위의 망분리 규제 개선 이전에도 교보생명은 지난해 7월 보험업계 최초로 생성형 AI Chat GPT(챗지피티)를 활용한 ‘교보GPT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생성형 AI 활용에 적극 나선 바 있다. 해당 서비스 역시 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교보생명은 “생성형 AI 기반 어시스턴트 프로그램과 임직원이 내부망에서 생성형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교보GPT’ 역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실화 될 경우 설계사 및 임직원의 업무 환경이 더욱 개선되고 고객 만족도가 제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올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112대 1

인터넷 청약 도입 후 역대 두번째
강남·서초구만 전체의 58% 차지

올해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설 전망이다. 치열했던 청약 열기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평균은 112.8대 1로, 지난해 56.9대 1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1년(163.8대 1)

을 제외하면 인터넷 청약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다.

핵심 지역에서 알짜 아파트 공급이 이어진 것이 경쟁률을 높였다. 강남구, 서초구 2곳에만 34만5000여개의 청약이 몰렸고 이는 전체 청약의 약 58%를 차지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대비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된 탓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 에델루이’의 1순위 청약에는 해당지역

에서만 3만7000여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025대 1을 기록했다. 역대 서울 지역 분양 단지 중 최고 경쟁률이다.

분양제가 적용돼 전용면적 84㎡ 기준 최대 22억원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된 반면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대치팰리스’의 비슷한 평형 매물과 비교해 약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면서다.

향후 서울 아파트 공급 가뭄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도 청약 열기에 힘을 보탤 것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 3만5000여 가구를 기록하고 이후 1만여 가구를 밀출 전망이다.

/전지원 기자 jiw13@

KB금융,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추가 편입

업계 첫 자사주 매입소각 등 도입
기업가치 제고 노력 꾸준히 높여

KB금융그룹이 코리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지수에 신규 편입됐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 지수 발표일인 지난 9월 24일 이후부터 이달 6일까지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 51개 사 중 지수 편입 기업 43개사를 심사해 KB금융을 포함한 5개 종목을 신규 편입했다.

KB금융은 업계 최초 자사주 매입소각과 분기 배당 도입,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 발표, 배당 총액 기준 분기 균등 배당 도입 등 한 차원 높은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여력을 꾸준히 높여왔다.

올해 4월에는 업계최초로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이라는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 바 있다. KB금융

은 ▲올해부터 분배당을 시행하고 ▲주당 현금배당금은 배당총액(분기별 3000억원 수준, 연간 1조2000억원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간 배당금액 총액 1조2000억원 수준을 최소한 유지 또는 확대를 원칙으로 운영하면서 배당성향은 이익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보통주자본(CE T1)비율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밸류업 방안’을 공시했다. 이를 통해 KB금융은 2025년부터 CET1비율 13%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은 주주에게 환원하고 총주주환원율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에 CET1비율 13%가 넘는 잉여자본은 2025년 1차 주주환원의 재원으로, 2025년 연중 13.5%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은 하반기 자사주·매입소각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승진 기자 smahn1@

광주은행, 고병일 현 은행장 연임 확정

광주은행은 오는 12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고병일 은행장(사진)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JB금융지주 자회사 CEO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로 고병일 현 은행장을 단독 추천했다. 이어 광주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 행장을 단독 후보로 최종 확정됐으며, 17일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선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1966년 광주광역시 출생으로 금호고,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광주은행에 입행해 임방울대리점장, 개인영업전략부장, 종합기획부장, 영업1본부 부행장, 경영기획본부(CFO) 겸 자금지장본



부 부행장 등을 지냈으며, 2023년 제14대 광주은행장으로 취임했다.

고병일 은행장은 지난 2년의 임기 동안 지역밀착 상생경영에 집중하고, 광주광역시 1급고수성, 핀테크와의 연계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지역사회 환원 확대 등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최근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힘든 시기가 예상되지만, 변화와 혁신으로 내실있는 질적 성장을 이뤄내 리딩뱅크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세련된 디자인에 경제성·상품성 하이브리드 이어 가솔린모델 '질주'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지난달 6582대 판매... 싼타페 추격 하이브리드모델, 뛰어난 정속성 자랑 가솔린모델, 역동적 주행성능 발휘

르노코리아의 판매량을 이끌고 있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그랑 콜레오스'가 세련된 디자인과 경제성·상품성을 앞세워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그랑 콜레오스는 르노코리아의 효자 상품이다. 내수판매는 1년 전보다 300%가량 증가했는데 10대 중 9대는 그랑 콜레오스다. 과거 르노코리아가 출시한 중형 세단 SM6의 분위기와 비슷하다. 당시 SM6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연비효율을 앞세워 한때 현대차의 쏘나타의 판매량을 넘어이기도 했다. 지난 11월에는 그랑 콜레오스가 6582대 판매되며 현대차 싼타페(7576대)의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특히 E-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에 이어 가솔린 모델까지 흥행에 성공하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최근 출시된 가솔린 모델의 시승을 통해 하이브리드 모델과의 차이점을 확인했다.



르노코리아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주행 모습.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는 1.5L 가솔린 터보 엔진과 두 개의 전기 모터, 1.64kWh 배터리를 결합한 직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했다. 시스템 최고출력은 245마력 복합 15.7km/L대 효율을 발휘한다. 가솔린은 2.0L 터보 엔진으로 211마력의 출력을 내고 2WD는 7단 습식 DCT 변속기를 보그워너의 6세대 4WD를 탑재한 사륜구동 버전은 아이신 8단 자동변속기를 썼다. 복합 연비는 각각 11.1km/L, 9.8km/L다.

정속성은 두 모델 모두 뛰어났지만 굳이 선택하려면 하이브리드에 한표를 주고 싶다. 전기 모드 주행을 비롯해 전체적인 주행 순간 뛰어난 정속성을 자랑했다. 특히 도심이나 가까운 거리는 배터리 동력만을 이용해 주행할 수 있

어 전기차의 감성도 즐길 수 있다. 가솔린 4WD 모델은 장거리나 고속도로 주행이 많은 운전자에게 추천하고 싶다. 전체적으로 묵직한 주행감을 선사한다. 또 와인딩 구간이나 불규칙 노면에서도 흔들림없이 안정적인 주행을 이어간다. 여기에 역동적인 주행 성능은 고성능 SUV를 떠올리게 할 정도다.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가격은 가솔린이 3495만~4345만원, 하이브리드가 3777만~4352만원이다. 만약 하이브리드 모델의 구매를 고려한다면 올해가 적기라고 판단된다. 내년부터 정부의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이노텍, 차량센싱 솔루션 사업 본격화

500만 화소급 카메라 모듈 개발

LG이노텍이 자율주행 부품 사업의 핵심 축인 고성능 카메라 모듈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차량센싱 솔루션 사업 규모를 2조원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G이노텍은 500만 화소급 RGB-IR(적외선) 겸용 센서를 장착한 '차량용 RGB-IR 고성능 인캐빈카메라용 카메라 모듈'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성능 인캐빈 카메라 모듈은 차량 실내에 탑재되는 부품으로, 룸미러, 보조석 상단 등 다양한 위치에 장착이 가능하다. 졸음운전, 전방주시 등 운전자의 상태를 감지하거나, 보조석 및 2열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



차량용 RGB-IR 고성능 인캐빈카메라용 카메라 모듈 /LG이노텍

하는 등 차량 내부 인원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대비 약 5배 높은 500만 화소로 선명한 이미지를 통해 더 정확하게 탑승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자율주행이 고도화될 때 필요한 영상통화, 화상회의 등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최고수준 보안 인증

과기부 IoT 스탠다드 인증 획득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스템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사물인터넷(IoT) 최고수준(스탠다드) 보안 인증을 최초로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2018년 이후 삼성전자의 모든 스마트 가전은 녹스로 보호되고 있다. 삼성 녹스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는 다중 방어 형태의 보안 플랫폼이다.

삼성에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품들이 서로 연결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나섰다. 인공지능(AI) 가전 시대에 기기

간 연결로 차별화된 경험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문단속을 강화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녹스 매트릭스의 트러스트 체인, 크로스 플랫폼, 크리덴셜 동기화 등 기술을 내년 출시할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등 주요 제품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유미영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AI 가전 신기술만큼이나 보안 솔루션도 역점을 두고 발전시켜, 사용자들이 삼성의 스마트홈 생태계에서 AI 가전과 서비스를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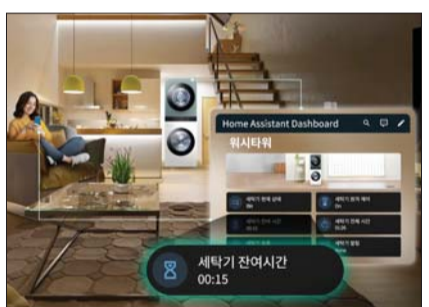
/구남영 기자

LG전자 “씽큐로 맞춤형 스마트홈 만드세요”

API 전면 개방... 개인·기업 구분 다양한 플랫폼 통합 연결 가능해져

LG전자가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LG ThinQ)'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전면 개방한다. LG전자 제품으로 손쉽게 똑똑한 공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LG전자는 최근 LG 씽큐의 API를 공식 개방하는 'LG 스마트솔루션 API 개발자' 웹사이트를 열었다. API는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고 기능을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 연결 고리'다. 개발자들은 개방된 씽큐의 API를 통해 다양한 LG



LG 씽큐의 API를 활용해 구현한 스마트홈 연출 이미지. /LG전자

전자 제품 데이터와 기능을 자신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으로 가져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LG 씽큐의 API는 개인 사용자용 '씽큐 API'와 기업 파트너용 '씽큐 비즈니스 API'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가

정이나 빌딩 등에 설치된 LG전자 제품의 원격 제어, 다양한 플랫폼과의 통합 연결 등이 가능해진다.

개인을 위한 씽큐 API는 다양한 스마트홈 플랫폼에서 LG 씽큐 앱에 등록된 가전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씽큐 API를 활용하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홈을 손쉽게 구성할 수 있다.

기업용 씽큐 비즈니스 API는 사무실·주거용 빌딩을 운영하는 파트너사가 가전부터 냉난방공조, 사이니지 같은 상업용 설비까지 다양한 LG전자 제품을 기존 앱에 연동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HJ중공업, 677억 규모 MRO 사업 수주

해군 독도함·고속상륙정 창정비

HJ중공업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423억원 규모의 해군 독도함 창정비 사업과 254억원 규모의 고속상륙정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HJ중공업은 이달 초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해군의 대형수송함(LPH-I)과 고속상륙정(LSF-II) 외주 창정비 사업 입찰에 참여해 적격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두 건의 수주 금액을 합산하면 677억원이다.

지난 2007년 국내 최초의 대형수송함 독도함을 100% 자체 설계, 건조한

HJ중공업은 2022년 수주한 독도함 성능개량사업에 이어 창정비 사업까지 동시에 수행하게 돼 국내 MRO 시장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는 "해양 방위산업체로서 50여 년간 함정 건조와 창정비를 통해 쌓아온 기술력이 수주 성사 비결"이라 평가하며 "우리 해군의 작전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이번 창정비 임무 역시 완벽히 수행할 것이며, 해외 MRO 시장 진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현대모비스, 배터리셀 냉각 소재 개발

진동형 히트파이프로 안정적 열 관리

현대모비스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아주는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초고속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 과열을 방지해주는 새로운 배터리셀 냉각 소재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냉각기술

을 확보하고, 이를 상품화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알루미늄 합금과 냉매로 구성된 진동형 히트파이프(Pulsating Heat Pipe)를 배터리셀 사이사이에 배치해 급속 충전 시 치솟는 배터리 내부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일반 알루미늄보다 10배 이상의 열 방출 성능을 갖춘 진동형

히트파이프를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열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져 전기차 충전 시간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차량용 배터리 냉각에 이를 적용하고, 양산 체비를 갖춘 것은 현대모비스가 처음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초고속 충전 지원 여부가 중요한 하이엔드 전기차에 우선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완성차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술 홍보와 영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HMM, 인도~유럽 구간 신규 서비스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HMM은 내년 2월부터 대서양 및 인도~유럽 구간에 신규 서비스를 개설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서양을 횡단해 유럽과 미주지역을 잇는 TA1과 인도와 북유럽을 연결하는 INX가 신설된다. 특히 TA1은 주요 원양 항로의 하나로

2018년 서비스 종료 이후 7년 만에 재진출하는 항로다.

TA1은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시작되며, 4600TEU(6m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10척이 투입돼 왕복 총 70일이 소요된다. INX는 파키스탄 카라치항에서 첫 출항하며, 6000TEU급 컨테이너선 11척이 투입돼 왕복 77일이 소요된다.

/양성운 기자

韓 IDC 정책, ‘전자파 해결’에 갇혀… 주민이탈·갈등은 외면

(인터넷데이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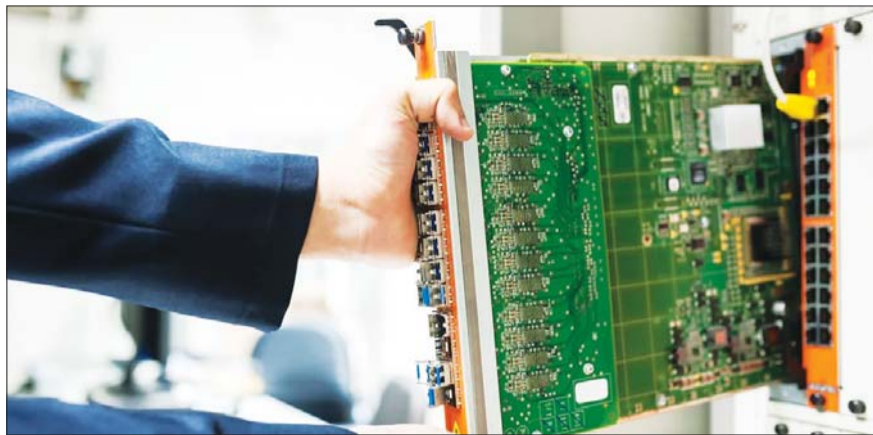
美,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립 가속
인구유입 없이 전력망 부담만 가중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 방안 논의

韓, 전자파 우려에 신호등 설치 논란
전력·수자원 문제에 대한 논의 부재
다각적 정책 수립·상생 방안 필요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여파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는 IDC가 남비(NIMBY, 지역주민들이 각종 혐오시설의 유치를 반대하는 것) 현상의 새로운 시대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IDC 설립에 따른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해결책 모색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전자파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운 상태이며, 다각도로 접근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1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미국 중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대 IDC 건립에 따른 주민 이탈과 건립계획에 대한 반대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버지니아 주(州)의 페어팩스 카운티는 최근 주민 이탈과 빈곤율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23년 총 인구 2만5140명이었으나 2021년 2만4280명으로 다소 줄었는데, 정작 빈곤율은 2020년 27.4%에서 2023년 27.8%로 높아졌다. 페어팩스는 버지니아 주에서도 특히 IDC가 대거 들어선 곳으로, 4만 3292㎡에 달하는 IDC가 자리하고 있



데이터센터를 관리하는 사람의 모습. 데이터센터는 해당 지역의 전력망 손실과 지역 경제 발전 저하를 가져온다. IDC 관리에 대인원이 필요하지 않고 발전소, 변전소 등 주요 전력시설만이 필요한 탓이다. /PEXEL 무료이미지

다. 이는 축구장 6개에 달하는 너비다.

인구 이동은 IDC 건립에 따른 발전소와 변전소 등 주요 남비 대상 시설 탓이다. 버지니아 주 전체로 합산하면 30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가 현재 가동 중인 까닭에 ‘버지니아 프로젝트’로 불리는 IDC 건립 반대 단체까지 세워졌다.

미국 내 IDC 건립에 대한 반대 여론은 전력망 손실과 함께 설립에 따른 지역민의 이익 보장이 되지 않는 데에 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 버지니아에서 생산된 모든 전력의 25%가 IDC로 갔고, 현재 속도로 IDC 확충이 이뤄진다면 해당 수치는 2030년 46%에 이를 전망이다. 중형 IDC는 매일 냉각을 위해 1000가구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물을 사용하는데, 해당 비용은 IDC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은 아직 대규모 IDC 센터에 따른 기존 주민 이탈 사례는 없다. 그러나 주요 IT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를 위한 단독 IDC를 짓는 추세에 따라 관련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 인지하는 IDC에 대한 문제는 일차원적이다.

지난 11월 ‘스마트엔터프라이즈 2024’에 참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전자파 신호등 설치 등을 통한 IDC 안전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많은 시민이 데이터센터를 유해시설로 본다.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실제로 데이터센터 근처에서 측정되는 전자파의 양은 생각보다 적어 전문가 실측 결과 인체보호 기준 약 5%에서 최대 10% 미만에 그치며 최저

치는 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알리기 위해 전자파 신호 등을 통해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를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주요한 문제로 떠오른 지역민에 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정부가 인지하는 IDC 건립에 따른 문제가 일차원적인 만큼, 이미 관련 문제가 벌어지고도 해결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과거 발생했던 제주도와 카카오 간 문제다. 카카오는 제주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문화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책을 앞장 세운 사업계획서를 통해 2007년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입주했다.

그러나 2015년 결국 대부분 인력을 학교로 이동시키기 시작해 2022년 기준 전체 직원 중 2.4%인 82명만을 제주 본사에 남겼다. 여기에 더해 제주 제2데이터센터 건립사업까지 결국 무산되면서 국정감사에서 ‘떡볶이 논란’까지 일기도 했다.

당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중 대표기업은 카카오”라며 “제주 경제와 문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담긴 사업계획서에 대해 제주도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환영했고, 카카오는 입주와 함께 각종 지원으로 259억원의 혜택을 받았지만 결국 사업계획서 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KT

“AI가 스팸 위험 판단”

스팸 의심문자 알림 서비스 출시

KT는 스팸 문자 위험도를 판단해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스팸 의심문자 알림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용자는 별도로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 없이 오늘부터 무료로 삼성전자 단말에 자동 적용되며, 고객이 수신하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에 대해 스팸 의심여부를 표시한다. 내년부터는 멀티미디어메시지(MMS)에도 적용한다.

이와 함께 KT는 점점 고도화되는 스팸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무료 부가서비스인 ‘KT 스팸차단 서비스’도 강화한다.

악성 스팸 URL뿐 아니라 URL의 최종 IP까지 추적해 차단하는 기능을 내년 1월까지 적용 예정이다. 이로써 스팸차단 서비스를 피하기 위해 URL을 계속 바꾸던 변종 행위까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KT는 지난 9월 마이케이티 앱에서 ‘스미싱 지킴이’ 서비스를 출시했다. 문자 카카오톡 라인을 통해 받은 메시지의 URL이나 설치파일을 클릭할 경우, 자동으로 스팸 불법사이트 연결 여부를 파악해 자동으로 차단한다. 스팸 지킴이 서비스는 KT 마이케이티 앱을 설치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ngia_tea@

“노하우부터 경영 전략까지”… 외식업의 길잡이 되다

배달의민족, ‘외식업컨퍼런스’ 개최
배민 데이터 기반 2025 트렌드 공개
철가방 요리사·딤섬 여왕 등 강연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배민외식업컨퍼런스’ 현장은 외식업계 종사자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외식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직 사장님부터 예비 창업자까지 약 20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배민외식업컨퍼런스는 배달의민족이 외식업 장사 전략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행사다. 현재 외식업을 운영 중인 사장님은 물론 예비 창업자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지난 2020년 온라인 행사로 시작해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배민외식업컨퍼런스’에서 마련된 ‘배민 솔루션’ 체험존 속 배민 서빙로봇. /이혜민 기자

이날 행사는 ‘외식업 인사이트’와 ‘배민 인사이트’, ‘베스트 클래스’, ‘사장님 클래스’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 코너별 4~9개씩 총 25개의 외식업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필요에 따라 판매전략, 레시피, 마케팅, 손익관리 등 다양한 강연을 선택해 들었다.

권재홍 우아한형제들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오늘 이 자리가 사장님들의 2025년 성공 전략을 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경희대 최규완 교수는 ‘2025 외식업 성공전략’ 발표를 통해 “외식 산업의 과밀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저하가 예상된다”며 외식 경영의 효율화를 강조했다. 오후에는 ‘철가방 요리사’로 알려진 임태훈 셰프가 긍정과 근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너 셰프로 성장하기까지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공유했고, ‘딤섬 여왕’ 정지선 티엔미미 셰프는 매출을 올리는 사이드 메뉴 레시피를 전수했다. 프란츠커피 송성만 이사는 프란츠의 10년 생존 스토리와 커피 메뉴 노하우를 소개했다.

김지현 우아한형제들 사장님커뮤니케이션실장은 배민 데이터로 분석한 ‘2025 배민트렌드’를 최초로 공개했

다. 내년 핵심 키워드는 ‘조개인화’ ‘저속노화’ ‘맞춤소비’ 세 가지다. 고객의 취향을 세분화해 맞춤형 옵션을 제공하고, 저염·저칼로리 등 건강 메뉴 트렌드를 반영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현장에는 사장님 전용 식자재물 ‘배민상회’ 전시도 마련됐다. 배민상회는 올해 7주년을 맞이한 사장님 전용 종합 온라인 식자재물로, 배민상회의 다양한 파트너사들이 공간을 채웠다. 서빙로봇과 테이블오더 서비스 ‘배민오더’ 등 배민 솔루션 체험존도 큰 인기를 끌며 참석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권재홍 우아한형제들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트렌드를 이해하고 새로운 영감과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얻어 지금의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가는 지혜와 용기를 얻어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

LX하우시스, 10년 연속 ‘DJSI 코리아 지수’ 편입

국내 인테리어 업체 유일 포함

LX하우시스가 10년 연속으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 지수’에 편입됐다. LX하우시스는 글로벌 금융 정보 제공기관 ‘S&P Global

I’이 발표한 ‘2024 DJSI Korea 지수’에 LX하우시스가 국내 인테리어 업체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DJSI 지수는 S&P Global이 1999년부터 25년째 발표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지수로,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E

SG 측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올해에는 환경관리 관련 항목이 용수, 폐기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더욱 엄격한 평가가 진행됐다.

/김승호 기자 bada@

LX하우시스는 환경 정책 및 관리, 기후 전략, 안전관리, 인적자원관리, 위기 관리, 정보보안 항목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환경경영 시스템의 범위를 공개한 점과 온실가스 관리, 환경경영 관련 임직원 교육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LGU+

“AI 대화로 콘텐츠 추천”

익시 기반 ‘U+tv’ 업그레이드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을 통해 IPTV에서 대화하며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LG유플러스는 AI 기술 ‘익시’를 기반으로 IPTV인 U+tv에서 대화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탐색’ 기능을 업데이트 했다고 17일 밝혔다.

U+tv의 대화형 탐색은 고객이 리모컨에 탑재된 음성 검색 버튼을 통해 자유롭게 대화하며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기존에는 고객의 음성 명령 중 AI가 사전에 입력된 ‘명령어’를 이해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는 고도화된 AI가 길이가 긴 대화형 문장의 ‘맥락’을 이해하고 맞춤형 답변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영화 타로 찾아줘”, “차운우 나오는 드라마” 등 정확한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을 중심으로 답변을 제공했지만, 대화형 탐색은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함께 볼 영화 추천해줘”, “타로 줄거리 알려줘”, “데드폴 어떻게 생각해?” 등 상황과 분위기에 따른 콘텐츠 추천은 물론, 콘텐츠 관련 추가 정보도 대화를 통해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환율 '1500원대'까지?... '강달러 수혜' 기계·조선업종 주목

환율 1438.9원... 전일비 3.9원 ↑
FOMC, BOJ 예정에 환율 하락 제한
美 트럼프 집권 2기 무역분쟁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400원대 가능성
조선·기계산업, 발주·수출 ↑ 기대

탄핵안 가결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1500원대'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트럼프 정권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선·기계업종에 대한 관심이 가능할 것으로 제시됐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9원 오른 1438.9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1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인한 안정세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전 거래일보다 2.0원 오른 1435.0원에 마쳤다.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일본은행(BOJ)의 금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35.0원)보다 3.9원 오른 1438.9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융정책결정회의 등이 예정되면서 환율 하락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2016년 탄핵 소추안 이후 상승하던 원화가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 전 반락했던 사례를 고려하면 원화는 재차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원화가 레고랜드 사태 당시에 기록했던 고점인 1445원 부근에

근접했지만 단기간 내 원화가 강세를 보일 요인이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완화로 환율 상승분이 일부 되돌림 되더라도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연말까지 1400원에서 1430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지만 하나

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1400원 초반대에서 안정되더라도 미국 예외주의 지속, 트럼프 집권 2기의 무역분쟁 등이 미 달러 강세를 유도할 공산이 크다"며 "원·달러 환율은 내년 상반기까지 1400원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환율이 15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내년에는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며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9300억달러까지 확대하고,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2008년에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1600원까지 올랐었지만,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가 긴급 체결되면서 환율이 안정된 바 있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자 증권가에서는 관련 수혜 종목들을 주목하고 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 상승에 영업이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은 에너지, 기계, 조

선, 자동차, 필수소비 업종 등"이라며 "테크 업종보다는 산업재 관련 업종들이 미국 제조업 부흥과 관련돼 수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기계, 조선 업종 등은 연말을 맞아 차익실현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정책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선업은 트럼프 정권의 화석연료 부흥책에 따라 국내 운반선(탱커, LNG 운반선)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계 산업도 대중 무역정책으로 인한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내년 2분기 중후반 국내 수출 전망은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허 연구원은 "지금부터 천천히 수출 주가운데 환율수혜가 예상되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가능해 보인다"며 "의외로 반도체, 유틸리티 업종의 영업이익은 원달러가 하락할 때 빠르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이복현, 日 3대 은행 등에 밸류업 성과 알려

은행·금융지주·공적연금 고위급 면담
주요 금융현안 관한 의견 청취
양국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도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3대 은행·금융지주 등 5개 기관들과 만나 한국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비상 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에도 "한국 금융시장은 안정적"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자본시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이 일본 현지에서 3대 은행·금융지주·공적연금을 만나고 위급 면담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위급 면담에 참여한 일본 대형은행은 ▲MUFG ▲SMBC ▲Mizuho 등이다. 제8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출장 중인 이 원장은 전날 이토 히데키 일본 금융청 장관과 만났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중국 성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카메자와 히로노리 MUFG 그룹 CEO가 고위급 면담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장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양국 금융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주요 금융현안에 관한 글로벌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일본 은행·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과 금융시장 변동성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회복했으며 시스템이 복원력을 보였다"며 "한국 경제·금융시장은 정상 작동 중이며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금융회사의 투자환경 악화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일본 금융회사의 한국 내 영업활동에 본사 차원의 지속적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통화·산업·금융 정책 조합으로 경기 하방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회담에선 양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도 논의됐다.

이 원장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소개하면서 우량·대기업을 중심으로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시장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92개사, 전체 시총의 34.1%에 해당한다. 이 원장은 "주주이익 보호 원칙 도입, 자사주제도 개선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번 출장에서 일본 밸류업 추진 우수 기업인 TSI홀딩스의 재무총괄책임자와도 만남을 가졌으며, TSI홀딩스는 기업가치 제고 전략·실행의 실제 사례를 공유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고점논란에도 팔란티어·테슬라 공격매수

해외주식 Click

AI·자율주행 등 미래성장성 높게 판단
팔란티어 2.3억株, 테슬라 2.2억株 매수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LTR)', '테슬라' 등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는 지난주(12월 10~16일) AI 데이터 분석회사인 팔란티어의 주식을 2억 3782만달러 어치 사들였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올 들어 341%가량 오르면서 고점에 다다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투자자들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팔란티어 주가에 대

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팔란티어는 AI 기반 데이터 보안과 관리 솔루션을 통해 상업 부문에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매출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팔란티어의 사업 확장 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서학개미들의 매수세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테슬라에서도 두드러졌다. 서학개미는 지난주 테슬라 주식을 2억 2632만 달러 어치 사들였다.

테슬라의 주가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하면서 정치적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다. 테슬라는 지난 13일 436.2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16일에도 6.14% 급등한 463.02달러를 기록하며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웠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증권, 해외주식 자산규모 30兆 돌파

전년비 73% 늘어... 계좌수 47% ↑

삼성증권은 해외주식 자산규모가 30조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규모다. 해외주식 거래 계좌수도 전년 대비 약 47% 늘어난 53만개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의 해외주식 자산규모 추이를 보면, 해당 기간 연평균 성장률(CAGR)이 34.1%로 집계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삼성증권의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주로 미국 주식에 집중하고 있지만,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의 주식에도 직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일본, 영국 등이 미국에 이어 자산 기준 2위, 3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대형 빅테크 기업 주식이다. 또한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위 보유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증권은 올 연말까지 해외주식 신규 및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는 미국 주식의 온라인 거래수수료를 첫 3개월간 0원으로 제공하며, 이후 9개월간은 거래수수료를 0.03%~로 적용한다. /원관희 기자

미래에셋증권, ESG 경영성과 '13년 연속' 인정받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편입

미래에셋증권이 S&P글로벌(GlobaI)이 발표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World Index)'에 13년 연속으로 편입됐다.

17일 S&P글로벌에 따르면 증권업이 속한 다각화된 금융서비스 부문(Diversified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은 총 18개의 글로벌 기업이 월드 지수에 편입됐다. 미래에셋증

권은 해당 부문 내에서도 우수한 ESG 역량을 보였으며, ▲기후전략 ▲개인정보보호 ▲중대성 평가 공시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올해 서스틴베스트로부터 상·하반기 모두 금융권 최고등급인 AA등급을 받은 데 이어, 한국 ESG기준원으로부터 증권업 유일 3년연속 종합 A등급을 받아 국내 시장에서도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5년까지 지속가

능금융 45조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올해 3분기 기준 39.5조 원을 기록하며 목표치의 약 88%를 이행했다. 또한 지구온난화 이슈에 동참하고자 2021년 국내 금융사 최초로 RE100에 가입하고, 재생에너지 인증서(REC)장기구매계약과 가상전력구매계약(VPPA)을 체결해 현재까지 목표의 약 58%를 달성했다. 이외에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캠페인과 기부활동 등을 기획하여 임직원의 참여도를 높였다. /허정윤 기자

빅테크부터 통신사까지... 101조 '양자기술 사업' 선점 박차

(2030년 세계시장 규모)

양자기술 뭐길래?

10년 걸릴 계산 단 5분만에 끝내
신약개발 소요시간 획기적 단축

구글, 오류율 증가 해결 '윌로우'
IBM, 신형 양자칩 '퀀텀 헤론' 선보이
이통3사, 양자내성암호 개발 주력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물론 국내 통신사들이 양자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연산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양자 컴퓨터를 연이어 출시하며 미래 시장 선점에 나섰다.

양자컴퓨터는 10년 걸릴 계산을 단 5분만에 끝낼 만큼 연산능력이 뛰어나 신약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통신사들은 양자 컴퓨터의 해킹 공격을 방어하는 양자내성암호 기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양자내성암호는 보안 연구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만큼 미래 통신 품질 개선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양자분야를 적극 지원해 국내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빅테크 기업, '101조원 시장' 양자컴퓨터 개발 속도

17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미래양자융합포럼과 함께 발간한 '양자정보기술백서'에 따르면 전세계 양자정보기술 시장 규모는 2022년 8조 6656억 원으로 평가된다. 연평균 36% 성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6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민관군 양자정보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해 퀀텀코리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시관에서 이용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사로부터 '초전도 기반 50큐비트 양자컴퓨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시스

장률을 기록하며 2030년에는 101조 2414억 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양자컴퓨터의 특징은 획기적으로 빠른 연산속도를 자랑한다. 기존 컴퓨터와 달리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양자역학적 원리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일반 컴퓨터는 정보를 0과 1의 비트 단위로 처리하고 저장하는 반면 양자컴퓨터는 정보를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갖는 큐비트(양자비트·Quantum bit) 단위로 처리하고 저장한다. 다만, 양자칩의 양산에는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글은 최근 새로운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했다. 윌로우의 핵심은 양자컴퓨터의 고질적인 문제인 오류율 증가를 해결한 점이다. 현재 최고 수준의 슈퍼 컴퓨터가 10의 24제곱(셉틸리언)번 반

복되는 문제를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큐비트 수가 많아질수록 오류율이 증가하는 양자컴퓨팅의 한계를 극복했다. 이에 실시간 오류를 기하급수적으로 줄이게 되면서 양자컴퓨터 상용화의 또 다른 문턱을 넘었다.

세계적인 IT 기업인 IBM도 지난달 신형 양자칩 '퀀텀 헤론'을 선보였다. 퀀텀 헤론은 구글의 윌로우와는 달리 안정적인 확장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됐다. IBM은 '헤비-헥스(Heavy Hex)' 구조를 채택해 대규모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IBM의 양자컴퓨터인 'IBM 퀀텀 시스템 원(IBM Quantum System One)'이 최근 국내 최초로 연세대에 도입됐다. 한국은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에 이어 다섯 번째로 IBM 퀀텀 시스템 원을 설치한 국가가 됐다.

IBM 퀀텀 시스템 원은 127큐비트 IBM 퀀텀 이글 프로세서로 구동되는데, 우주의 별 개수보다 많은 2의 127승 가지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기존 컴퓨터가 0과 1을 순차적으로 계산하는데 반해 양자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처리해 더 빠르고 정확한 연산이 가능하다.

특히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되면 그간 난제로 꼽혔던 과학적 계산, 신약 개발, 기후 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블록체인의 암호화 체계를 뚫을 수 있게 된다.

◆이통 3사 정부 양자내성암호 개발 앞장

이처럼 양산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한 해킹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양자 컴퓨터에 앞서 양자내성암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양자통신 기술을 활용한 양자내성암호 등 보안 연구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는 과학적 난제를 활용해 양자컴퓨터의 공격을 막는 기술로, 미래 상용화될 6G 네트워크와 스마트 헬스케어,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SK텔레콤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양자기술연구소(Quantum Tech Lab)를 설립했다. 양자기술연구소는 양자암호통신·양자난수생성기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 2018년에는 IDQ 원천기술과 SK텔레콤 응용기술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의견에 따라 스위스 양자암호통신기업 IDQ를 700억원에 인수했다. 최근에는 QKD

(양자키분배)와 PQC(양자내성암호)를 합친 하이브리드(혼합형) 암호 상품을 출시했다.

KT는 '하이브리드 양자보안 가상사설망'(VPN·Virtual Private Network) 서비스를 위한 실증을 완료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전송망에서 고객 구간까지 하이브리드 양자 보안을 적용했다. 아울러 지난 9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을 발표하면서 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IT 기술 분야의 연구에 공을 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양자컴퓨터 보급에 앞서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상용화하고 광전송망 표준 제정을 추진해왔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표준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가 추진하는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운영 국책과제의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내년 1월 'PQC 마이그레이션 플랫폼'을 서비스 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양자기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원은 '양자기술 상용화 기반 조성' 사업 일환으로 ▲양자 쉐분야(통신·센서·컴퓨터) 기술사업화 ▲소부장 등 전환기업 발굴 ▲저변확대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온·오프라인 교육, 기업인턴십 등 양자분야 신규·전환 인력 양성을 지원해 국내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원은 2022년 1월 개소한 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K-QIC) 중심으로 지금까지 양자기술에 대한 기술사업화(6건), 소부장 등 양자지원기술 기업발굴(8건)을 지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올해 글로벌 반도체시장 19% 성장... 규모 6269억 弗”

삼정KPMG, 반도체 산업 6대 이슈
“내년 IC중심 확장세 두드러질 것”
메모리반도체 전년대비 81% 성장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인공지능(AI), 전력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등의 분야가 산업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삼정KPMG는 '반도체 산업의 6대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삼정KPMG는 17일 '반도체 산업 6대 이슈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삼정KPMG는

“2024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19% 성장하며 약 626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하락세를 보였던 미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반도체 시장이 2024년부터 급격히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025년에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IC(집적회로) 중심의 확장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2024년 메모리 반도체는 전년 대비 8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한국 반도체 시장 상황 또한 긍정적

이다. 보고서는 2023년 한국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2024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2.2%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같은 기간 78.9%의 성장세를 보이며, AI(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6대 주요 이슈로 AI, 전력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등을 필두로 혁신 요소들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 성장을 주도할 것이

라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AI 시대 고성능 반도체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AI 반도체가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운용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 처리 역량이 필수적이며, 병렬형 구조로 더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GPU 기반 AI 반도체와 HBM(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메모리)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는 AI 시대의 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대규모 M&A(인수·합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허정준 기자 zelkova@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AI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AI교과서 수업 참관 교사·학부모 만족도 ↑

교육부, 수업시연 설문조사

교육부는 내년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수업 시연을 참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3~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AI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시연을 본 교사 350명과 학부모 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사의 경우 AI 교과서 수업 시연을 참관한 후 8개 문항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참관 전(3.97점·5점 만점)보다 오른 4.33점으로 파악됐다.

/김현정 기자 hjk1@

AI “2050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확률 99%” 경고

스탠퍼드대 공동연구팀 AI활용 예측
온실가스 배출 중단해도 피할수 없어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17일 관련 학계에 따르면 스탠퍼드 대학교와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공동연

구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후 변화를 예측한 결과,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불과 30여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을 중단하더라도, 205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할 확률이

무려 99%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연구팀은 AI 기반 '전이 학습' 기법을 사용해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 10개의 지구 기후 모델 데이터를 분석했다. 스탠퍼드대학교의 노아 디렌보 교수는 “AI를 활용해 지역별 기온이 온난화 임계값에 도달하는 시기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세계 34개 지역의 기온 상승 추정치를 개선하고, 해 수많은 변수를 처리하고 더 정밀한 예측 결과들도 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205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설 확률이 무려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중단하더라도 피할수 없는 수준이다.

/이혜민 기자 hyem@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까지 인상 부부 동시 사용 시 최대 5920만원

고용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의결
출산휴가·육아휴직 동시 신청 가능
중소 대체인력 지원 최대 1440만원
복귀 지원 비율 폐지로 실질 강화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는 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25%를 복귀 후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을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기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할 경우, 1년간 각각 최대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3% 줄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줄었다. 사진은 24일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뉴시스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되며,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부담 지원금이 새로 도입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원씩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신청 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주의 책임도 명확히 했다. 출산

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을 동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 정보를 추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권익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양도 과정 완화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양도·양수 인가 절차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양도가 제한되고 있어, 운전자의 건강 문제나 장거리 이사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신규 면허자가 아닌 기존 사업자에게 동일한 양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양도 제한 기간 완화를 권고했다.

또한, 지역별로 요구되는 양수자의 거주 기간 요건을 1년 이하로 축소하고, 과거 또는 일정 기간 내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지자체별 기준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할 때 양수자뿐 아니라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양도자의 범죄경력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해외서 녹색산업 기술력 인정

수주·수출 22조7000억 달성

환경부, 전략회의·재정지원 지원 약속
기술 고도화·해외 진출 다변화 등 성과
사우디·브라질 등 수주 사례 돋보여

환경부는 올해 국내 기업이 22조 7000억 원 규모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조 4966억원 대비 약 2조 2000억 원 이상 증가한 수치로, 국내 기업들이 녹색 기술 고도화와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를 통해 꾸준한 성과를 이어간 결과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19개 사업에서 16조 4937억원의 수주 및 투자 성과를 거뒀으며, 602개 기업이 참여한 녹색제품 수출은 6조 1693억원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상수도 설계 사업(건화),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삼성물산), 브라질 상수도시설 구축 사업(지에스이) 등이 있다.

이번 성과는 환경부와 산업계가 원팀(One-Team)으로 협력한 결과다. 환경부는 협의체 참여기관(73개)과 밀접한 소통을 이어가며 1대 1 전략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사업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상대국 정부 및 발주처와 협력하며 녹색산업의 수주·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했다. 수주·수출 지원을 위해 16개국 현지에 녹색산업 수주지

원단을 26회 파견해 사업 발굴부터 협상, 수주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산업계와 함께 추진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에서 녹색산업 협의체 성과보고회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수주지원단 지속 파견 ▲전략회의 수시 개최 ▲재정지원 확대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 등 내년도 지원 방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협의체 참여 기업들은 현재 추진 중인 해외사업 사례를 발표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공적개발 원조(ODA) 예산 확대, 복잡한 인허가 협의 지원,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정부 관심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예산 지원, 투자 확대, 정부간 협상 등을 통해 기업들이 해외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내기업의 녹색산업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세계 녹색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주·수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지난해 건설업 매출 500조 '역대 최대'

통계청, '건설업 조사' 전년비 9.9% ↑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이 5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실제 공사는 기업 매출액에 1~2년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실적 부진이 내년과 후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3년 건설업 조사(기업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은 506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45조 7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4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단, 증가율은 지난해(+12.4%)보다 둔화했다.

건설수주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특히 수주 계약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 대비 10% 내외로 크게 증가했다"며 "건설비용도 증가했고 그에 따른 건설 단가의 상승분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종합건설업 매출액은 328조 8000억 원으로 12.4%(36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전문직별 공사업은 177조 9000억 원으로 5.6%(9조 5000억 원) 늘었다.

매출액뿐 아니라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 부가가치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설업 기업체 수는 8만 7891개로 전년 대비 0.7%(652개) 증가했다. 건설업 종사자 수는 181만 명으로 전년보다 4.0%(7만 명) 늘었다.

직종별로 보면 종합건설업 종사자 수는 63만 6000명으로 3.7%(2만 3000명) 증가했다. 전문직별 공사업은 117만 5000명으로 4.2%(4만 8000명) 증가했다. 건설비용은 490조 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5%(50조 6000억 원) 늘었다. 건설업의 부가가치는 151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4%(5조 원) 증가했다.

건설업 기업체당 매출액과 종사자 수는 각각 58억 원, 21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상위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203조 4000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0.1%를 차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글로벌 디지털 통상 대응전략 마련

산업부,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디지털·인공지능(AI) 관련 기업,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디지털 및 AI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뒤통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미국 신(新) 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및 국제 규범 현황' 등을 발표했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교수는 발표를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디지털·AI 분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신(新) 행정부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제 표준과 규범 형성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관련 국제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계는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디지털 통상 협정 추진뿐만 아니라 협력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주요국의 정책 및 규범 동향을 산업계와 정기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디지털 통상 분야의 최신 동향을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디지털 기술로 농어촌 활력 높인다

농어촌공사-네이버, 기후위기 대응

한국농어촌공사와 네이버가 '농어촌 기후위기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경기 성남에서 체결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에 힘쓰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돌봄 강화, 유류 자원 활용 등 농어촌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며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주된 협력 분야는 ▲농어촌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 분야 ▲농어촌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환 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위한 협력 분야 등이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디지털 기술은 농어촌의 변화와 성장을



한국농어촌공사와 네이버가 지난 16일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에서 '농어촌 기후위기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내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기술력을 보유한 네이버와 미래 농정과제 수행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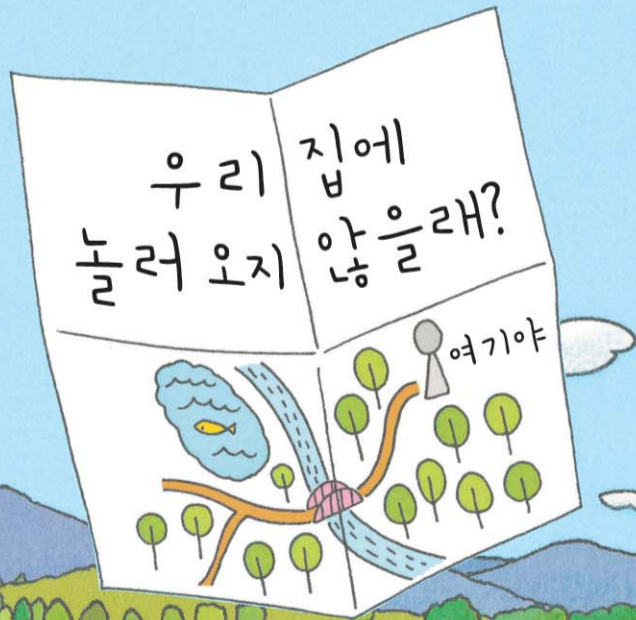
©Toshio IWAI/ KAISEI-SHA

**바다 100층짜리 집에 이은
NEW 시리즈 2탄
기발한 상상력의 이머시브 뮤지컬**

뮤지컬

100

층짜리 집



**2025.01.10(금) ~ 03.03(월)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 대극장**

포항시, 청정 임산물 유통 중심지 도약... AI 등 핵심기술 선도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첫삽 고령화 등에 생산능력 저하 대응 임산물 가공·판매 새로운 지평 열어

포항시는 지난 16일 포항시산림조합 숲마을 옆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사업' 현장에서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임산물 가공센터, 포항시산림조합 신청사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이동업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 손병웅 포항시산림조합장, 경북도내 산림조합장, 도·시의원, 임업단체 대표 등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임업 생산능력 저하 및 임산물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임업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산림청 공모사업인 '원격별 유통기반 조성 사업'에 지난 2022년 4월 선정



포항시가 16일 포항시산림조합 숲마을 옆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사업 현장에서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임산물 가공센터, 포항시산림조합 신청사 건립 기공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돼 기본계획 용역·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16일 드디어 첫 삽을 떴다.

물류터미널이 완공되면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인공지능로봇연구본부)에서 연구개발 중인 'AI 기반 임산물 자동화시스템'과 산딸기 살균·소독시설, 송이버섯 분류 등 최신 시설을 도입해 임업 분야의 핵심기술 선도하며 청정 임산물 유통의 기반 시설로 조성한다. 또한 복구 기계면 내단리 일원에

조성되는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는 첨단 자동화 설비와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목재의 생산·가공·저장·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자연건조시설, 자동제제 시설, 목재펠릿제조시설, 복합소재(CXP) 생산설비를 구축해 고품질 국산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목재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아울러 임산물 가공센터는 농산물에 비해 유통기한이 짧은 임산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관성을 높이는 산딸기 튀김, 송이 슬라이스, 포장 산나물 등 임산물 가공·판매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손병웅 포항시산림조합장은 "경상권역 임산물 유통 기반시설이 포항을 중심으로 조성돼 기쁘고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산림조합원과 임업인들의 권익을 높이고 임업 기술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늘 착공하는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임산물 가공센터, 포항시산림조합 신청사를 중심으로 포항이 청정 임산물 유통의 중심이 되고, 임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해양진흥공사-SH수협은행 '안전 바다로 조성' 사업 맞손

한국해양진흥공사와 SH수협은행은 지난 16일 부산 용당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안전 통학로 지원사업'의 후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양 분야 전문 금융 기관인 해진공과 수협은 항만도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달 초 부산시교육청, 남구청, 초록우산 등과 '안전 바다로 조성' 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고 후보지 위험도 평가, 관계자 인터뷰 결과에 따라 첫 번째 지원 학교를 부산 용당초로 선정했다.

이번 안전 바다로 조성 사업을 통해 ▲학교 노후 옹벽 개선 ▲안전 쉼터 ▲등하교 픽업존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사인물 등이 보강 및 조성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정기총회

전남 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오는 19일 3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군 소재의 남악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제19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신안군 연합회 정기총회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기총회와 기념식, 부대행사 순으로 진행되며, 어업 발전 기여자에 대한 전남도지사와 신안군수 표창 수여식이 예정돼 있다.

또한, 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해 연합회 회원과 신안군이 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경남도,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국비 예산 9억 6000만원 확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예산 확보 진주시, 함양군, 밀양시에 32억 투입

경남도는 내년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하나로 추진하는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국비 예산 9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은 시도 자율계정으로 시군 지역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시설 설치비 또는 기존 동물보호센터의 증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국비 예산은 총 56억 4300만원으로 이 중 경남도는 국비 9억 6000만원을 확보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사업 기간은 시군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진주시, 함양군, 밀양시 등 3개소에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

다. 지원 비율은 국비 30%, 도비 20%, 시군비 50%이며 건립 후 시군 직영으로 운영하게 된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유실·유기동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그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남도는 2020년부터 통영시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개선된 유기동물 보호시설, 진료실, 격리실, 사료 보관실 등을 갖춘 시군 지역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함양군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진주시와 밀양시는 2026년도 완공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수 경상남도농정국장은 "도내 동물 보호와 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센터 시설 확충으로 유실유기동물 보호 환경 개선에 더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영덕군은 지난 16일 대만으로 수출하는 사과 선적식을 북영덕농협 창수지점 선별장에서 개최했다. /영덕군

영덕 사과, 대만에 15만달러 규모 수출

대만으로 수출하는 사과 선적식 개최

영덕군은 지난 16일 대만으로 수출하는 사과 선적식을 북영덕농협 창수지점 선별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선적식에는 김광열 영덕군수, 서석조 북영덕 농협조합장, 사과수출공선회 농가 등이 참석했다.

영덕 사과는 동해안 특유의 해풍과 일조량이 많은 지역 특성상 당도가 높을 뿐 아니라 새콤달콤하며 향과 과즙이 풍부하여 대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사과 가격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대만에서 영덕산 사과가 높은 인기를 받는 이유로, 영덕군

과 창수면 사과수출공선회 농가들은 수출에 대한 의지와 사과 선별시설 설치 지원 등으로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고 수출 판로를 확보한 결과 올해 26.4톤의 물량을 대만에 수출하게 됐다.

이에 이번 1차 선적엔 영덕산 사과 13.2톤이 대만으로 보내지게 되며, 연말까지 2차 수출을 완료해 약 15만달러 규모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생산 시설과 품질관리 시설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수출 우수 단지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양산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경남 도내 기초지자체 중 최초

경남 양산시는 주민들의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 환경 조성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이 주거 형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과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 증가를 반영한 결정이다.

시는 이번 센터 설치에 경남 도내 기초지자체 중 양산시가 최초로 이뤄

진 것으로 지역 내 공동주택 관리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동주택 관리 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임을 의미한다.

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센터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노후유 공구,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양산(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내년부터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본격화

설계비 예산 162억 확정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대구시는 시의회에서 신청사 건립 설계비 예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신청사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설계비 예산은 162억 원이다.

신청사는 옛 두류정수장 부지 7만 8000㎡ 정도에 연면적 11만㎡ 규모로

건립되며, 시 본청과 의회가 함께 들어서게 된다.

총사업비는 약 45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재원은 신청사 건립기금과 시 공유재산 매각으로 마련해 지방채 발행없이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2025년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 설계공모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고, 혁신적인 설계를 선정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설계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구=김강식 기자 presskim@

밀양시

성실납세 시민 대상 경품 추첨

경남 밀양시는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 자동이체와 정기·수시분 등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 2만 54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추첨에는 안병구 시장, 허홍 시의회 의장, 이·통장협의회 회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밀양(경남)=이도식 기자

‘불닭 신화’ 삼양식품, 중국에 생산법인... 내년 전망도 ‘맑음’

645억 출자... 생산기지 다각화 법인 설립, 인건비·운반비 절감
태국에서 신규브랜드 ‘맵’ 공개
현지 재계 1위 CP 계열사와 협업
식물성 식품 브랜드 ‘잭앤필스’
건기식 등 출시... 헬스케어 박차



불닭 브랜드



/삼양식품 잭앤필스

/삼양식품

삼양식품의 ‘불닭 신화’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해외 사업과 신사업 강화에 나서면서 또 한 번 수익성 점프에 나선다.

삼양식품은 중국생산법인을 설립하고 현지공장건설을 통해 중국시장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공식했다.

먼저 삼양식품은 해외사업 총괄법인인 삼양 싱가포르 유한회사(가칭)를 설립해 645억여원을 출자하고, 해당 회사를 통해 중국 생산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생산기지 다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양식품의 해외수출기지 역할을 하는 곳은 밀양공장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밀양2공장도 본격 가동 예정이다.

삼양식품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로 해외 실적 비중이 월등히 높다. 때문에 해외 물량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양식품은 최근 업계 최초로 ‘7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삼양식품 수출실적은 7억 달러(약 9911억원)다. 매년 불닭브랜드를 중심으로 수출을 늘려가며 매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중국, 동남아,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불닭볶음면이 큰 인기를 끌며 수출이 가파르게 늘자 국내에 집중된 공장을 해외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국은 삼양식품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중국에 공

장을 건립하면 14억 인구를 겨냥해 제품을 현지화하는 데에도 이점이 있다.

업계 전문가는 “삼양식품의 중국 현지 공장 건설로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중국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전체 매출액의 8.5%를 차지하는 인건비와 운반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양식품은 지난 7~8일 태국에서 신규 브랜드 ‘맵(MEP)’을 글로벌 최초로 공개하고 방콕 ‘시암 스퀘어 원’에서 브랜드 론칭을 기념해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맵’은 삼양식품이 지난해 8월 국내에 출시한 ‘맵탱’의 글로벌 브랜드로 다채롭게 변주되는 K푸드의 매운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삼양식품은 태국 재계 1위인 CP그룹의 핵심 유통 계열사 CP ALL과 전략적 협업을 체결하고 지난달 21일 ‘맵’을 CP ALL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글로벌 최초이자 단독으로 출시했다. 향후 삼양식품은 태국 내 1만4000여개에 달하는 세븐일레븐 전 점포 입점을 시작으로 다양한 글로벌 ‘맵’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삼양애니를 통해 선보이는 ‘스쿨 런치 어택-잇츠 맵 타임!(School Lunch Attack - It’s MEP Time!)’ 콘텐츠를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을 더욱 가속화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사업인 헬스케어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3월 식물성 식품 브랜드 ‘잭앤필스’를

론칭하고 첫 제품으로 단백질 음료인 ‘프로틴드롭’을 출시했다.

잭앤필스는 오너 3세인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기획본부장 상무가 주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 식물성 건강 음료 브랜드 잭앤필스를 식물성 헬스케어 제품 통합 브랜드로 재정의하는 작업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단백질 음료뿐 아니라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한 건강기능식품과 간편식 등을 출시하고 제품 라인업과 브랜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튜브 채널을 신설하고 자체 콘텐츠도 발굴하고 있다. 회사내부에서도 신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앞서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은 성수동에서 열린 잭앤필스 팝업스토어 현장에 방문해 불닭 브랜드의 인지도를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생산법인 설립으로 사업 수익성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라면에만 의존할 수 없기에 식물성 헬스케어 제품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도 힘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에브리타임 누적매출 1.6조 ‘메가브랜드’로

정관장 ‘에브리타임’ 출시 12주년
패키지 디자인 바꾸고 정체성 강화



정관장 에브리타임 필름. /KGC인삼공사

정관장의 베스트셀러 ‘에브리타임’이 출시 12주년을 맞아 패키지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에브리타임’은 2012년 홍삼을 간편하게 섭취하려는 소비자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 탄생했다. 홍삼을 스틱형으로 선보였으며 그 결과, 2013년 90억원에 불과하던 ‘에브리타임’의 연매출은 2015년 480억원, 2016년 1000억원을 돌파했고, 2019년에는 19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난 12년간 누적매출액 1조5598억원을 기록하며 메가 브랜드로 성장했다.

제품 라인업도 꾸준히 확장했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스틱뿐 아니라 필름, 앰플 등 새로운 제형의 제품을 선보이고, TPO(시간·장소·상황)에 맞춘 홍삼의 다양한 소재와 맛을 더한 제품으

로 ‘간편홍삼’을 넘어 ‘간편건강’ 브랜드의 대명사로 불리게 됐다.

그중 구강용해필름(ODF)에 홍삼농축액을 압축시킨 ‘에브리타임 필름’은 출시 1년 4개월만에 누적판매량 480만장을 돌파하며, 2세대 에브리타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경량 개별 포장으로 지갑 및 주머니에 쥘 수 있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물 없이도 섭취할 수 있어 바쁜 업무나 운동 중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에브리타임’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작년 한해 ‘에브리타

임’으로만 해외에서 약 6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지인들의 건강 이슈를 분석하여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주요 글로벌 유통망을 다변화한 결과다.

실제로 ‘에브리타임’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최초로 미국의 프리미엄 마켓체인기업인 스프라우츠에 입점하여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 사이 혈액순환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부스팅과 신진대사에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홍삼의 혈행개선과 피로회복 기능성을 각각 특화해 제품화했으며, 쓴 맛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인의 입맛을 고려해 홍삼의 쓴 맛을 부드럽게 완화했다.

중화권에서는 ‘에브리타임’이 기존 뿌리삼 위주의 시장을 제품 위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만에서는 자몽맛으로 즐길 수 있는 ‘고려삼정에브리타임 요(柚)’가 2030 여성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신원선 기자

은향 딸기·대보밤 등 K-품종 과일 출시

롯데마트·슈퍼, 신품종 제철과일 선보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올해 겨울 제철 과일을 새로운 품종으로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롯데마트·슈퍼에 따르면, 이는 롯데마트에서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한 ‘K-품종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특히, 외국산 과일 품종 사용료를 줄이고 국산 품종을 활성화해 농가의 실질적 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사회 공헌 활동이다.

이에 롯데마트·슈퍼는 가장 먼저, 이달 19일부터 ‘은향 딸기’를 대형 유통사 최초로 선보인다. ‘은향 딸기’는 딸기 품종인 ‘대왕’과 ‘두리향’을 인공 교배해 탄생한 신품종으로, 지난 2021년 충남 딸기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신품종 등록을 한 제품이다. 적절한 산도와 풍부한 과즙, 높은 당도에 청포도향이 은은하게 나는 것이 특징이다.



롯데마트 제타플러스점 잠실점 과일매장에서 K-품종 딸기, 키위, 밤을 홍보하고 있는 과일팀 상품기획자들의 모습. /롯데마트

아울러, ‘대보밤’에 칼집을 낸 ‘칼집 대보밤’ 신품종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대보밤’은 지난 1975년 첫 개발을 시작해 1998년 한국, 중국, 일본의 품종을 삼원교배해 만든 토종 밤이다. 별도의 손질이 필요 없어 손쉽게 균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롯데마트·슈퍼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wotjis4187@

하이트진로, 미샤와 협업 등 MZ 마케팅

‘진로 크리스마스 에디션’도 출시

하이트진로는 소주 브랜드 ‘진로’의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시즌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MZ세대를 겨냥해 이종업계와의 협업, 한정판 출시, 제로슈거 마케팅 등 진로를 마시는 제품으로 한정하지 않고, 소비자 일상에서의 아이콘으로 자

리매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2일에는 화장품 브랜드 ‘미샤(MISSHA)’와 협업해 한정판 화장품 2종을 G마켓 라이브 방송에서 처음 소개했다. 라이브 방송 누적 시청자수 43만명을 돌파하며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연말 콘셉트인 이번 협업은 ▲쿠션팩트와 퍼프 ▲수분크림 ▲두꺼비 커플 변은 소주잔 ▲핑거비 캐릭터 담요 등을 선보였다.

겨울 맞이 시즌 마케팅도 눈에 띈다.

11월에 출시한 ‘진로 크리스마스 에디션’은 2주만에 생산물량이 전량 출고되며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실제 진로 공식 SNS 게시물에는 판매처와 해외 판매 계획 등을 문의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살린 라벨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는 평이다.

하이트진로는 MZ 세대의 관심사를 적극 반영해 10월부터 서울 주요 상권에서 진로골드, 테라라이트와 함께 ‘제로슈거 쏘맥’을 알리기 위해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가전·디지털·완구·주방용품 등 준비

쿠팡이 해외 직수입 상품을 최대 7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 세일 기획전을 이달 22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쿠팡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해외 직수입 브랜드의 가전·디지털, 완구, 주방용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최대 75%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특히,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텔레비전과 식기세척기 특별 할인을 진행한다고. ‘하이센스 안드로이드12 4K 미니

(Mini) LED 스마트TV’와 ‘TCL 안드로이드12 4K UHD TV’를 각각 149만 원대와 269만 원대에 만나볼 수 있다. ‘미디어 식기세척기 6인용’은 22만 원대에 선보인다.

이 외에도, 주방용품과 완구 제품 할인 혜택이 마련됐다. ‘레노스 홀리데이 루나스 에잇피스 네스팅 디너웨어 세트’는 11만 원대에 ‘레고 클래식 라지 조립박스’는 4만 원대에 제공한다. 또한, 영국 프리미엄 애착인형으로 유명한 ‘젤리캣 바시폴 테리어 강아지’도 4만 원대에 준비했다.

/안재선 기자

“최대 90% 할인”... 크리스마스 기획전 승부수

유통업계, 할인 폭 확대로 특수 잡기 저가 소비 트렌드 확산 영향

롯데마트 완구 최대 70% 할인
SSG닷컴 전년대비 할인폭 10% ↑
쿠팡 시즌·푸드상품 기획전 구성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 토이저러스 매장에서 관계자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홍보하고 있는 모습. /롯데마트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유통업계가 다양한 기획전을 펼치며 크리스마스 특수 잡기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할인 폭을 더욱 확대해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연말 특수를 노리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연말 특수를 잡기 위해 유통업계가 크리스마스 기획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올해 크리스마스 기획전의 가장 큰 특징은 최대 할인 폭이 작년보다 더 커졌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롯데마트에 따르면,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완구점 토이저러스는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아 인기 완구 브랜드 상품 2000여 종을 최대 70% 할인가에 선보인다.

지난 2023년과 비교했을 때, 토이저러스의 크리스마스 기획전 장난감 할인 폭은 무려 20%나 더 커졌다. 롯데마트 토이저러스는 작년 인기 완구 제품을

최대 50% 할인가에 선보인 바 있다. 한편, 올해 롯데마트 토이저러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접포별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도 진행한다. 롯데아울렛 기흥점에서는 이달 25일까지 '레고 홀리데이 팝업스토어'를, 토이저러스 김포공향점에서는 '슈퍼루키 BIG4 캐릭터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토이저러스 서울역점에서는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톰과 제리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SSG닷컴 역시 올해 크리스마스 상품 최대 할인 폭을 작년 대비 10% 더 늘렸다. 앞서 SSG닷컴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기획전 'X-mas 기프트 가이드' 행

사를 진행하며 패션·뷰티·명품·완구 등 제품을 최대 80% 할인가에 제공했다.

올해 SSG닷컴은 최대 할인가를 90%로 늘려 크리스마스 기획전을 실시한다. 올해는 연령대별 인기 제품군을 나눠 제안하는 '쇼핑 익스프레스' 기획전을 통해 20대와 30대 연인들을 위한 패션 제품,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제품, 어린 자녀를 위한 완구 제품 등을 선보인다.

쿠팡 역시 올해 더 높은 할인가를 적용했다. 앞서 쿠팡은 작년 말, 크리스마스 트리·조명 등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과 가전·뷰티 등 가족과 연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상품을 한데 묶어 최

대 50% 할인가에 제공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과 크리스마스 홈파티를 위한 푸드 상품 기획전 두 가지를 구성해 진행하고, 각 기획전 모두 최대 50% 할인가를 적용했다. 여기에 크리스마스 맞이 장난감을 최대 80% 할인가에 진행하는 '토이페스타' 기획전을 추가해 이달 25일까지 진행한다.

이처럼 유통업계가 전년과 다르게 올해 크리스마스 기획전 할인 폭을 확대한 배경에는 최근 저가 소비 트렌드가 확산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온라인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 기업 케이피알(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고물가와 관련된 키워드의 언급량이 지난 2024년 1월 44만 8124건에서 11월 86만 2136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케이피알 관계자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세는 오히려 둔화했으나, 물가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물가지수의 완만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점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이 부담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SK바이오팜 프로엔테라퓨틱스와 방사성의약품 공동연구

SK바이오팜은 바이오텍 기업 프로엔테라퓨틱스와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SK바이오팜과 프로엔테라퓨틱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전임상 단계의 신약 후보물질을 최대 2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SK바이오팜은 신규 기술을 접목해 기존 약물이 충족하지 못했던 의료적 수요를 해결하고, 방사성의약품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프로엔은 고유 기술 플랫폼인 '아트바디'를 활용한 이중 표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종양 선택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SK바이오팜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무신사 스탠다드 롯데백화점 동탄점 개장

캐주얼웨어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가 이달 19일 롯데백화점 동탄점 3층에 새로운 오프라인 매장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무신사 스탠다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롯데백화점 동탄점이 개점한 이후, 국내 제조·유통 일원화(SPA) 브랜드가 입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신사 스탠다드 롯데백화점 동탄점에서는 맨·우먼·키즈 제품군 2024 가을·겨울 시즌 아우터와 다양한 인기 상품을 선보인다. 영유아 비중이 높고 평균 연령이 30대 중후반인 화성시의 특성상 '영 패밀리' 고객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무신사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판콜에스' /동화약품

동화약품 '판콜에스', 2년 연속 종합 감기약 매출 1위

동화약품은 종합감기약 '판콜에스'가 2년 연속으로 감기약 시장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동화약품에 따르면, 판콜에스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35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약 1430억 원 규모의 국내 감기약 시장에서 약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판콜에스는 전년 동기에도 감기약 매출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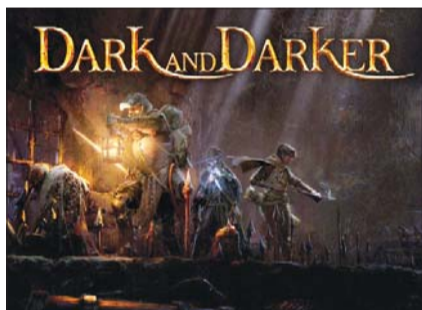
또 동화약품 자체 매출 집계 기준으로 2023년 '판콜' 제품군의 매출액은 511억에 이른다.

/이청하 기자

'넥슨 개발자료 유출 의혹' 아이언메이스, 검찰 신문 진행

넥슨 P3 개발자료 유출 혐의 인정 다크 앤 다크 사용 여부엔 불송치

아이언메이스 "넥슨 주장 모두 허위" 넥슨 "콘텐츠 업계 생태계·문화 훼손"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크 대표이미지 /아이언메이스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인 'P3'의 자료를 유출해 게임을 개발했다는 혐의를 받은 아이언메이스와 넥슨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검찰의 4차신문이 진행됐다. 이날은 소송 처음으로 양측이 직접 신청한 증인이 참석해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들은 같은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으로 넘겨져 양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검찰의 신문이 이

어졌다. 지난 9월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이후 이어진 행보다.

최씨 등은 넥슨에서 근무하던 당시 담당하던 P3 프로젝트 개발 자료를 무

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넥슨은 최씨가 퇴사 한 이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유출한 자료로 '다크 앤다크'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8월 최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최씨와 다른 관계자 등이 넥슨에서 'P3' 개발 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 법인, 또다른 관계자 B씨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도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다만 검찰은 아이언메이스가 'P3' 데이터를 실제로 '다크 앤다크'에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또 다

크앤다크와 P3가 유사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양사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 가운데 아이언메이스는 입장문을 통해 "넥슨의 주장은 모두 허위 사실임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이번 사건을 창작 기반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와 건전한 경쟁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인벤티지랩, 비만치료제 제형 특허 확보

장기지속형 주사제형 구현 기술

인벤티지랩이 세마글루타이드 마이크로 입자 및 이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인벤티지랩의 특허는 회사 고유의 플랫폼 기술인 'IVL-드러그플루이딕'을 통한 차별화된 세마글루타이드 마이크로 입자 제형 제조 원천 특허이다. 특히 IVL-드러그플루이딕으로만 구현할 수 있는 독자적인 특허 권리로 기술적 진입장벽을 확보해, 관련 제품 제조 경쟁력을 장기

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인벤티지랩은 고품질의 고분자 마이크로 입자를 활용해 장기지속형 주사제형을 구현하는 기술로 기존 약물(AP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장기 지속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제형화 제조 플랫폼인 IVL-드러그플루이딕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및 해외에 총 75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현재까지 27건의 특허가 등록되는 등 관련 기술력을 입증해왔다.

/이세경 기자 selee@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우존스 월드지수' 편입

4년 연속 편입... 상위 1% 등급 획득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표 평가 지표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에 4년 연속 편입됐다고 17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1년 이래로 4년 연속 월드 지수에 편입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우선 환경 부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명과학 서비스 분야 내 상위 1%에 해당하는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2년 11월, '2050년 넷 제로 달성' 목표를 발표한 후 사업장 운영 및 제조 에너지를 매년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있으며 태양광 에너지 사용 등 친환경 사업장 구축을 위한 인프라 개선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기후관련재무공시 협의체(TCFD) 보고서를 통한 위험 및 기회 분석, 지속가능성장계획위원회(SMI) 참여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를 확대하고, 자연자본(TNFD)에 기반한 관리 전략을 수립했다.

/이청하 기자



원광디지털대학교
WONKWANG DIGITAL UNIVERSITY

당신이 꿈꾸는
원더풀 라이프

원더풀 라이프



원광디지털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안내

1차 모집기간
2024.12.01.(일) ~ 2025.01.10.(금)

2차 모집기간
2025.01.22.(수) ~ 2025.02.14.(금)

모집학과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약선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

대한항공, 연말 사회공헌 활발... 메가캐리어 품격 높인다



SPC그룹, 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1147장 전달
SPC그룹이 헌혈증 1147장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헌혈증은 SPC그룹 임직원들이 양재동 SPC1945 사옥에 설치된 헌혈증 모금함과 지난달 29일 진행된 헌혈 캠페인을 통해 마련됐다. SPC행복한재단 백승훈 사무국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PC그룹



KB증권, '깨비증권 크리스마스 행복캠' 성료
KB증권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깨비증권 크리스마스 행복캠'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깨비증권 크리스마스 행복캠'은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이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올해 캠프는 KB증권 직원들이 산타 복장과 함께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더욱 뜻 깊은 시간을 만들었다. /KB증권



기보-지역난방공사, 감사·내부통제 역량 강화 MOU
기보는 지역난방공사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감사 전문성 및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임명배 기보 상임감사(왼쪽)와 김자열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HS효성, '벤츠와 함께하는 산타데이' 봉사활동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HS효성 더클래스가 지난 9일 인천 소재 해성보육원에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하는 산타데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임직원들은 원아들과 진저브레드 쿠키로 과자집을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HS효성

여경협, 차기회장 박창숙 추대

(창우섬유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11대 회장에 박창숙 창우섬유 대표(사진)가 추대됐다.
여경협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2024년 전국총회'를 열고 박창숙 현 수석부회장을 재직 대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장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김승호 기자



사랑나눔회, 김장 나눔 행사 칼맨싱어즈, 지역사회 자선공연

대한항공이 연말을 맞아 국내외에서 잇따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1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 사내봉사단 '사랑나눔회'는 지난 7일 경상남도 김해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우리들의 집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총 7명의 직원들은 직접 재료 손질부터 양념 버무리기까지 총 700포기의 김장을 담았다. 이날 담긴 김치는 시설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돼 따스한 온기를 전했다.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봉사단 '다솜나눔'도 같은 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홀트일산요양원에서 장애인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봉사단 '다솜나눔'은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홀트일산요양원에서 장애인 대상 송년회를 개최했다.

대상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번 송년회는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연말 행사로, 평소 시설에서 맛보기 어려운 다양한 먹거리와 즐거운 공연, 댄스파티 등을 선사했다.

나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해외봉사도 진행했다. 대한항공 사내



대한항공 사내 합창단 '칼맨싱어즈'가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에서 자선공연을 펼쳤다. /대한항공

대한항공 사내 합창단 '칼맨싱어즈'는 지역사회를 위한 자선공연에 나섰다.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에서 'O love', '제주도 푸른밤', '시간에 기대어' 등 10개 곡의 합창 공연을 펼쳐 아름다운 음악을 선물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전경훈 사장 등 5명 美 IEEE 펠로우 선정

전 사장, 5G·vRAN 개발 공로

삼성전자는 전경훈(사진) 디바이스 경험(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 겸 삼성리서치 연구소장을 포함해 임직원 5명이 미국 전기전자공학회(IEEE)의 2025년 펠로우(석학회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전기전자공학회는 전기·전자·컴퓨터·통신 분야에서 세계 최대 권위와 규모를 가진 학회다. IEEE 펠로우는 IEEE 회원 중 최상위 0.1% 이내로 선정되는 최고 기술자 등급이다.

전 사장은 5G 무선통신과 가상화 무선접속망(vRAN) 기술 개발 공로



를 인정받아 펠로우에 선임됐다.

그는 통신기술 전문가로 5G 핵심 기술과 상용 솔루션 개발을 주도했다.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성공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에 기여했다. 현재는 삼성전자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선행 기술의 연구 개발을 총괄하고 있다.

김윤선 삼성리서치 마스터도 5G 이동통신 표준화에 기여해 펠로우에 이름을 올렸다.

김 마스터는 지난 7년간 3GPP 무선접속 물리계층기술분과(RAN W

G1)의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역임했으며 5G 물리계층 표준화 성과로 인정받아 펠로우에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아 2명의 펠로우를 배출했다. 티모시 호스페달레스 삼성리서치 유럽 AI센터장과 마이클 브라운 삼성리서치 토론토 AI 센터장은 각각 AI 머신러닝 및 카메라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펠로우에 선임됐다.

마수오카 디바이스 솔루션(DS)부문 파운드리사업부 SRAM 랩장도 파운드리 트랜지스터 개발 성과로 인정받아 펠로우로 선정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SKT DJSI 월드지수 편입

SK텔레콤은 2024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지수에 편입됐다고 17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08년 처음 DJSI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린 이래, 2020년을 제외한 총 16년간 포함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DJSI 월드지수 편입에는 ▲이사회 중심의 ESG 경영체계 강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이중 중대성 평가 시행 ▲환경경영 정책 고도화 ▲공급망 ESG 프로그램 확대 적용 ▲구성원 육성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계 ▲이해관계자 소통 정책수립 ▲고객정보 관리 강화 및

공시 고도화 등 SK텔레콤의 다양한 ESG 경영 노력이 반영됐다. /구남영 기자

LG화학, 동반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등 협력

사 ESG 경영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도록 지원했다. 특히, 2023년 ESG 지원사업에 참여한 10개 협력사의 ESG 지표 평균 준수율이 86.2%

로 참여한 모든 협력사가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획득했다. 또한, 협력사 전과정평가(LCA) 수행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제공하고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협력사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상생협

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ESG 지표를 선정하고 환경 분야를 중점으로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반위 이달근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을 도울 뿐 아니라 화학산업 내 ESG 경영 확산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종근당건강, '저탄소 캠페인' 전개

활동이다. 임직원 가족도 동참해 텀블러와 무라벨 제품 사용, 비닐 사용 자제 등을 실천했다.

종근당건강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남대문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330가구에 락도핏을 전달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



서울 남대문쪽방상담소에서 박종태 상담소장(가운데)과 종근당건강 직원들이 후원물품 전달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종근당건강

동화기업 '웹 어워드 코리아' 대상

동화기업이 '웹 어워드 코리아 2024'에서 인테리어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17일 동화기업에 따르면 웹 어워드 코리아(Web Award Korea)는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 사이트를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웹 사이트 평가 시상식이다.

동화기업의 바닥재 브랜드 '동화 자연마루' 홈페이지는 이용자 친화적인 UI(사용자 환경)·UX(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인정받았다. /김승호 기자

인사

- ◆서울시설공단 △홍보실장 오석 △인재문화원장 유홍선 △IT전략실장 서미영
- ◆한국방송공사(KBS) △부사장 김우성
- ◆비씨카드 ◇전무 승진 △매입운영본부장 박복이 ◇상무 승진 △매입사업본부장 정철 △IT기획본부장 임홍균 △페이북컴퍼니장 최민석

AI를 활용한 단백질 구조예측 ①



연민엽의
푸드톡

지금으로부터 약 10만년 전 인류는 아프리카를 떠난 후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극한의 환경에서 생리적으로 적응하여야 하고, 농경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식습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유당분해 능력을 유지하는 유전적 변이가 발생했다. 이러한 유전적 변이는 문화적 적응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공지능(AI) '알파고(AlphaGo)'가 바둑 게임에서 인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가볍게 승리하고 세상에 등장한 시점을 번곡점이라고 가정할 때 인류의 과학적 진보 속도와 수준은 말이 끄는 마차에서 자동차로 이동수단이 발전된 것 이상으로 획기적이다.

올해 노벨 화학상과 노벨 물리학상의 핵심요소는 인공지능 알파폴드(AlphaFold)였다. 알파(Alpha)는 구글 딥마인드가 이전에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에서 유래한 것이다. 폴드(Fold)는 단백질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뜻한다.

단백질은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 특정한 위치에서 3차원 구조로 '접히는(folding)'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이 단백질의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알파폴드는 단백질 구조에서 접히는 패턴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알파폴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단백질의 구조를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 미래의 바이오산업 분야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할 수 있다.

인공지능 알파폴드 이전의 단백질 분자 구조분석은 X-레이 회절, NMR 분광, 활성화 에너지 분석, 극저온 전자현미경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샘플 준비부터 데이터 수집, 이미지 처리까지의 전체 과정에 몇 주에서 몇 달이 소요되었으나 이에 비해 알파폴드와 로제타폴드는 보통 몇 시간에서 몇 일 만에 단백질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단백질은 우리가 꼭 섭취해야 할 중요한 영양소이면서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체 분자이기도 하다. 단백질은 인체 구성요소에 필요한 물질들을 운송해 주는 라이다와 같은 역할과 음식을 섭취했을 때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거나, 인체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화학 반응을 좀 더 잘 일어나게 촉진시켜 주는 효소(Enzyme)

활동도 단백질이 한다.

또한 세포가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전달 과정에도 단백질들이 서로 신호를 전달해 준다. 외부의 병원체가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면역 반응에도 다양한 단백질들이 기여를 한다. 단백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냄새 유발물질을 인식해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우리 몸 안에 있는 DNA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50여년 동안 과학자들은 단백질의 서열(sequence)로 구조(structure)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마침내 전통적인 실험방법을 답습하지 않고 단백질의 구조를 찾아내는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한 결과 계산을 통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게 된 것이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월등히 우수한 점은 숨어있는 패턴을 재빨리 찾아내는 일이다.

데이터만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면 잠재적 패턴을 굉장히 잘 찾아낸다. 이런 이유로 단백질구조 예측에 인공지능을 결합하였다. 알파폴드 역시 단백질구조 예측을 위한 진화정보를 담고 있는 수많은 단백질의 서열 데이터에서 구조와 관련된 패턴을 찾아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일이다.

/ESG 푸드테크 소사이어티 대표

건기식 구매했는데, 마약 성분은 덤?



기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섭취가 늘어나면서 불량 제품과 오남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해외 직구로 다이어트나 성 기능 효과 등을 표방한 건기식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위해성분 적발도 함께 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해외직구로 반입된 건기식은 7089만건으로 수입 규모는 5조3000억원(38억46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제공하는 위해식품 정보를

활용해 해외직구로 반입된 건기식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6만976건(904만4100정)의 불량 건기식을 적발했다. 식약처 검사에서도 해외직구로 반입된 건기식에 대한 위해성분 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출된 위해성분은 의약성분이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식품 사용불가 원료, 식품 공전 부정물질 및 유사물질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마약성분 검출도 34건 확인됐다. 건강 증진을 위해 구입한 건기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발암가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정부의 규제심판부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건기식의 개인간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당근마켓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총 판매액은 7억3800만원, 동기간 7만8103건의 판매 게시물이 올라온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판매자도 2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규정 위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감시단은 턱없이 부족하다. 약물 오남용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됨은 물론이며, 소비자 개인도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성분 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tree6834@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18일 (음 11월 1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하는 일이 순조롭다. 48년생 장미꽃이 발아래 깔려 있다. 60년생 자식이 보물 1호이니 아파도 보듬어라. 72년생 초심을 잃지 말고 늘 같은 자세로 행동해야. 84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마음을 굳건히.



37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 49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61년생 작은 일이라도 무심히 넘기지 마라. 73년생 세 살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프다. 85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해야 하나 고민.



38년생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한발 물러서서 생각. 50년생 밤을 이겨내는 자만이 밝은 새벽을 맞이한다. 62년생 쓸데없는 생각은 접어둬라. 74년생 바쁘지만 결과가 좋아서 기쁨. 86년생 책임진 일이 성과가 늦게 나타나 초조하다.



39년생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니 희망을 버리지 말라. 51년생 원숭이도 조인으로 일을 극복. 63년생 비상금을 풀어야 할 때. 75년생 가족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날이지만. 87년생 소금장사 나기는데 비가 내리는 격이니 조심.



40년생 결혼은 돌이 했으니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여행. 52년생 올바른 처신이 구설수를 예방. 64년생 내키지 않은 일로 종일 마음이 불편. 76년생 일의 진행을 방해하는 복병이 있으니 신중하자. 88년생 기회가 와도 망설이다가 놓친다.



41년생 조상님 제향을 챙겨야 하는 날. 53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을 것이다. 65년생 돈으로 주변을 서운하게 하지 마라. 77년생 주변 사람에게 한 격려는 큰 성과로 돌아온다. 89년생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소식이 온다.



42년생 요행수를 바라다가 큰코다친다. 54년생 멀리서 오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쁘다. 66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항상 예의를 갖춰라. 78년생 창조적 생각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니 공부. 90년생 만족감이 크지 않으나 그래도 성과는 있다.



43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사용. 55년생 변명을 해보나 통하지 않는다. 67년생 손풍에 마음이 한가하고 편안. 79년생 운동으로 건강을 지켜야만 돈도 잘 벌 수가 있다. 91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



44년생 열심히 노력하면 운도 저절로 따라온다. 56년생 내 인생이니 내가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라. 68년생 올바른 선택을 위해 조언이 필요. 80년생 부부간에도 배려와 존중이 필수 양보하는 마음을. 92년생 지금 이대로의 나를 사랑하자.



45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 57년생 불평보다는 직무에 충실하라. 69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마침내 온다. 81년생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해야 내일이 보강. 93년생 주변에 적이 많으니 오만하지 말고 언행에 특히 주의.



46년생 시간은 거짓이 없고 늦지 않았으니 다시 기술을 배우자. 58년생 죽순은 비운 뒤에 더 잘 자라니 역경을 견디자. 70년생 정든 사람이 떠나간다. 82년생 많은 사람이 부딪치며 사는 것이 인생사인데. 94년생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47년생 대결이 시작됐으니 남은 것은 성공뿐. 59년생 하나를 투자해도 두 개로 돌아오는 운 좋은 날. 71년생 먹고 싶은 것을 선물 받는다. 83년생 조상님 공덕으로 영계 있는 실태를 풀 수 있다. 95년생 내년이 삼재이니 지갑은 열고 말을 신중히.



김상회의四季 허풍과 잘난 척

허풍과 잘난 척중 어느 것이 더 밍살일까? 아마 모든 유권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해리스 후보의 패인에 대한 다른 각도의 평가다. 즉 트럼프의 허풍보다 해리스의 훈계질 같은 잘난 척이 더 미웠다고 하는 하마평이 신문 기사에 실렸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만약 해리스가 하는 똑같은 류의 얘기를 백인 남성 후보자가 했더라도 그렇게 들렸을까. 자유민주주의로서 남녀 평등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유색인종 여성이 하는 똑똑한 얘기들이 귀에 거슬렸을 것이라 생각을 해본다. 게다가 자기네들의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니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하는 것들이 잘난 척이자 훈계 질로 들리며 백인 기독교 남성 보수적 사회에서 거부감이 작용했을 것이라 얘기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잘난 척은 유지하고 낮은 행동거지다. 겸손을 성숙한 인품의 척도로 평가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하다. 잘난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질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시기와 질투만큼 무섭고 독한 것이 없다. 이런 면에서 필자는 흥풍의 거부 '리카싱' 선생을 떠올려본다. 아시아 최고 부자인 그가 경계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교만이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생계에 뛰어들었다. 조금 커서는 플라스틱공장에서 일하게 된 그는 입사 1년 만에 판매 실적 1위를 달성했고 2위와는 7배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실적이었다. 성과급을 더 주겠다는 회사의 제안을 뿌리치고 2위와 같은 금액의 보너스를 받았다. "큰 나무는 바람을 많이 맞는다"라는 교훈을 생각했다. 그는 "사람의 질투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나는 팀과 나를 위해서라도 보너스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때 그의 나이 스무 살이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Advertisement for 'Sudoku 365' featuring a grid of numbers and promotional text for 'Argo9'.

Advertisement for 'Metro' magazine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매년 30% 고속성장… 혁신신약 제조, 글로벌시장 도전장”

혁신기업 돋보기

마더스제약

“우리는 매출 200억원대부터 신약 연구를 시작했다. 그때 모두들 무모하다고 말했다. CMO(위탁생산)에서 시작해 제네릭을 넘어 혁신신약 제조사로 도약하는게 우리의 꿈이자 미래다.” 마더스제약은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창업주 김좌진 회장은 회사가 약관의 나이가 되면서 ‘VISION 2030’을 제시했다. 2030년에 ▲매출 1조원 ▲국내 제약사 ‘TOP 10’ 진입 ▲글로벌 신약 개발이 핵심 비전이다.

김 회장은 “매출 1조원은 현실적이라기보다 이상적인 목표다. 지금과 같은 성장세라면 2030년께 5000억~6000억원 매출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때되면 제품 중 80~90%는 자사 상품이 될 것이다. 인수합병(M&A)을 통한 제약사 추가 인수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아남제약을 인수한 후 마더스제약으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사명에는 ‘엄마의 마음으로 최고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그후 마더스제약은 연평균 30%가 넘는 고속 성장을 이어왔다.

2012년 당시 19억원이던 매출은 2014년엔 100억이 넘는 106억원을 기록 하더니 242억(2016년)→324억(2017년)→431억(2018년)→646억(2019년)→708억(2020년)→811억원(2021년)으로 늘어난 후 2022년에는 1066억원으로 ‘매출 1000억대’에 올라섰다. 지난해엔 1589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매출 목표치는 2000억원으로, 현재 순항하고 있다.

“매년 30% 이상은 성장해야 (급여·복지 등에서) 직원들을 배려할 수 있을 것 같더라. 투자나 배당도 매출이 높아야 가능한 일이다. 반면 10%대 성장에 그치면 아무것도 하기가 쉽지 않다. 10% 미만엔 머물고 있는 영업이익도 2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더스제약은 경북 경산공장에 이어 2021년에는 전북 익산공장을 완공하며 완벽한 생산 체계를 갖췄다. 레이본정(골관절염 진통소염제), 에스오피엠정(소화성궤양 치료제), 로수엠젯정(고지혈증 치료제), 테네글립정(당뇨병 치료제) 등을 주로 생산하는 경산공장은 일약 기준으로 연간 5억정을 생산할 수 있다.

이보다 많은 8억정의 생산 능력을 갖춘 익산공장에선 스토엠정(소화성궤양 치료제), 브로나제(소염효소제), 콘디600정(골관절 비타민제) 등을 주로 생산한다.

특히 익산공장은 유동층 건조기, 이



마더스제약 김좌진 회장이 서울 구로에 있는 R&D센터에서 회사를 설명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작년 매출 1589억, 올 2000억 기대 매출 200억대부터 신약연구 시작

익산공장에 ‘제재연구소’ 만들어 향후 당뇨·관절염 분야 등에 집중 내년 가을 목표 ‘기업공개’ 계획

중정 타정기 등에 더해 다양한 자동화 설비를 도입, 스마트팩토리로 탈바꿈하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장 밀착형 연구를 하기 위해 익산공장에는 ‘제재연구소’를 만들었다. 자사제품(ETC) 비중을 점점 늘려가고 신약 파이프라인을 넓혀나가

기위해서다”고 설명했다.

마더스제약은 2023년 기준으로 자사 제품(ETC)과 위탁매출(CMO) 비중이 6대4를 기록했다. 레이본정, 로수엠젯정, 스토엠정, 세클렘캡슐, 에스오피엠정 등 ETC 제품 비중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는 “지금까지 돈 되는 제품은 다 생산했다(미소). 앞으로는 당뇨, 관절염, 비만, 황반병성 등 노화질환 분야에 더욱 포커스를 맞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약개발도 마찬가지다.

건성 황반병성 치료제(MTS-DA), 통증 치료제(MTS-CP), 2형 당뇨병 치료제(MTS-DM)가 대표적이다.

김 회장은 “건성 황반병성은 현재 시

장에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안구에 직접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점안제 형태로 환자에겐 큰 부담이 없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2023년에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내년에는 글로벌 임상 시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더스제약은 내년 가을에 기업공개(IPO)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앞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도 받았다.

마더스제약은 복막염유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엠이티(MET)라이프사이언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관절 질환에 특화된 재활 운동치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에버엑스(EverEx), 탈모 치료제 연구에 특화된 캐나다 바이오기업 트리플헤어(triple hair)에 각각 투자를 하고 있다.

“약학을 전공하던 대학시절 막연하게 ‘제약회사’를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다. 약국 체인유통을 해보니 제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장기적 승부수가 필요해 결국 제약업에 뛰어들었다. 우리 같은 규모의 회사가 신약개발에 집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더스제약은 의학, 건강, 헬스에 집중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시장을 지향할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하도급대금 연동대상 확대 등 19건 건의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위원장 간담회

중소기업계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하도급대금 연동대상 확대 및 실태조사 강화’ 등 공정거래 관련 19건을 전달하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혼란스러운 국정

가운데에서도 한기정위원장이 경제를 챙기고 중소기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한 위원장에게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협동조합 공동사업 관련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보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 조속 신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를 전달했다. /김승호 기자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체험해 보세요”

전국 이브자리 매장에 체험공간 ‘온돌’ 체온 따라 숙면온도 유지

국민보일러 귀뚜라미가 토털슬립케어 브랜드 이브자리 체험형 매장에서 3세대 카본매트를 선보인다.

(주)귀뚜라미는 이브자리 전국 체험형 매장에 3세대 카본매트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최적의 수면 솔루션을 목표로 하는 양사가 힘을 합쳐 고객들에게 더욱 나은 수면환경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브자리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 체험형 매장에서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를 직접 사용·구매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운영한다.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온돌’은 잠잘 때 체온 변화에 따라 숙면 온도를 유지해 주는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을 적용했다.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은 소비자가 원하는 수면 시간과 온도를 설정하면 작동 초기 설정된 온도에서 3시간 동안 천천히 온도를 떨어뜨려 더위로 이불을 차는 행동을 방지하며 체온을 맞춰준다. 또 기상 시에 따뜻한 아침을 맞이하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가 이브자리 체험형 매장에서 숙면 경험을 본격 제공한다.

도록 2시간 전부터 초기 설정 온도로서 서히 올려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숙면에 잠자고 개운하게 깰 수 있도록 9시간 동안 33℃의 포근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수면 기능과 2시간 동안 3단계(45℃, 50℃, 55℃) 찜질모드로 빠르고 강력한 온도를 제공한다.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는 매트 좌우 각각의 온도를 각자 체온에 맞도록 조절할 수 있는 분리 난방 기능도 갖추고 있다.

카본열선에서는 인체에 이로운 원적외선이 대량 방출되어 피부 속까지 온기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 향상

에도 도움을 준다.

조작 편의성도 뛰어나다.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과 카본매트를 연결해 멀리 있는 자녀 방, 안방에서도 카본매트를 제어할 수 있다.

한편, 이브자리 체험형 매장에서 수면 컨설팅과 비교 체험을 통해 개개인의 수면 습관, 체형을 고려한 맞춤형 침구를 추천하고 있다.

귀뚜라미보일러 관계자는 “최적 숙면 온도를 제공하는 귀뚜라미와 맞춤형 침구를 제안하는 이브자리가 만나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최상의 숙면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오늘의 날씨

12월 18일 (수)
음력 : 11월 18일

수도권 날씨
-6 ~ 1℃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7:42 | 해질 / 17:16

연천 -11/0, 동두천 -9/1, 가평 -10/2, 파주 -11/0, 서울 -6/1, 양평 -7/2, 인천 -6/-1, 수원 -4/0, 용인 -4/0, 평택 -7/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비지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트럼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논의할 것”
▲트럼프 “미-중은 세계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 협력 가능” /사진 뉴시스

▲이틀 남은 올해 마지막 FOMC... “이달 금리 인하 후 동결 들어갈 수도”
▲美 “북한군, 쿠르스크 전투서 사망... 일주일전부터 투입”



▲EU, ‘반정부 시위 탄압’ 조지아 외교관·관용여권 비자면제 중단
▲中, 무비자 환승 3일에서 10일 연장... 한국 등 54개국 여권 소지자 /사진 뉴시스



‘불닭 신화’
삼양식품
중생산법인 설립
니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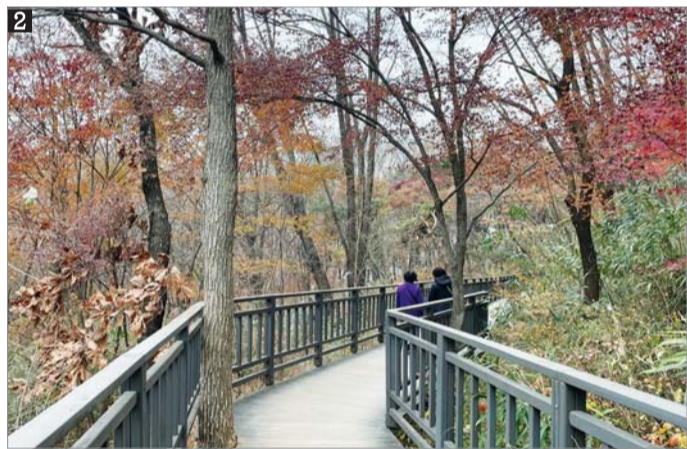
최대 90%할인
크리스마스 특수
승부수
L2



‘용의 전설’ 깃든 산 정상 올라, 청룡의 해 돌아볼까

❖ 되살아나는 서울 ㉞ 양천구 ‘용왕산공원’

서울 양천구 목동에는 21만3552㎡ 규모의 ‘용왕산공원’이 자리해 있다. 공원은 안양천이 한강과 합류하는 올림픽대로 인근에 위치했으며 다목적운동장, 게이트볼장, 반려견 놀이터, 야외무대, 실내 배드민턴장, 약수터, 유아 숲 체험장 등을 갖췄다. 과거 목동은 목초가 우거져 말을 방목하고 키우는 지역이었다. 목동과 그 가족이 모여 살아서 목동(牧洞)으로 일컬어지다가 훗날 나무목(木)을 붙인 목동(木洞)으로 바뀌었다.



1 1994년 서울 정도 600년 기념으로 세워진 정자 ‘용왕정’.
2 유아차·휠체어도 이용하기 쉽게 조성한 무장애 숲길.
3 용왕산공원 내 맨발황톳길.

/김현정 기자

◆용왕산에 깃든 전설은?

가느다란 눈발이 흩날린 지난 16일 용왕산공원을 찾았다. 지하철 5호선 목동역 3번 출구로 나와 6620번 버스를 타고 6개 정류장을 이동해 월촌초등학교 정거장에서 내려 목적지에 도착했다. 목동 우성아파트 102동 쪽으로 가면 공원과 맞닿은 용왕정길이나 온다. 굽이굽이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 무장애 숲길 진입로에 다다랐다.

무장애 숲길은 유아차를 끄는 보호자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하기 쉽게 완만한 경사의 데크로 조성됐다. 이날 오후 숲길 들머리에선 두툽한 패딩과 마스크, 털모자와 장갑으로 무장한 모녀가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순도순 정담게 대화를 나누며 산책하는 두 사람을 지나 공원 내 다목적운동장으로 향했다. 인적이 드물어 제법 한산한 숲길과 달리 운동장은 체력 단련을 하는 주민들로 북적여 활력이 넘쳤다. 어르신들은 공중 걷기, 허리 돌리기, 노 젓기, 윗몸 일으키기, 역기 내리기 등을 돌아가며 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운동을 하다가 땀을 많이 흘린 노인은 두꺼운 잠바를 고이 접어 벤치에 올려 두고 열을 식히며 가벼운 숨을 몰아쉬었다.

안양천-한강 합류하는 곳에 위치한 공원 왕이 꿈 바탕으로 산에 얽힌 전설 생겨 엄지산에서 왕 상징하는 ‘龍’·‘王’자 붙여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르신을 보며 노인과 왕, 용이 등장하는 용왕산의 전설을 떠올렸다. 용왕산은 옛 지도에 엄지산(嚴知山)으로 기록돼 있다. 해발 78m와 68m의 두 봉우리가 엄지손가락처럼 생겼다 해 이 붙었다. 평범하고 지루했던 산명은 왕이 꿈 꿈을 계기로 비범하고 신묘한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어느날 왕은 갈대가 무성한 천호지벌(현 목동 신시가지 지역)에서 기운이 세고 험상궂은 장수가 자신을 해치는 꿈을 꾸게 된다. 흉몽이 째짤했던 왕은 신하에게 천호지벌을 살펴보고 오라고 시킨다. 그 무렵 엄지산 아래 박씨 성을 가진 노인이 임종을 맞으며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긴다. “내가 죽거든 남들에게 알리지도, 염도 말고 그대로 관에 넣어서 물구나무서듯 머리가 땅을 향하게 세워 묻겨라”

자손들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관습대로 장례를 치른다. 한편 왕의 명을 받고 한양에서 온 신하들은 천호지벌을 살살이 뒤지던 중 얼마 전 장례를 마친 박씨 노인의 봉분이 파헤쳐진 것을 알게 된다.

시신은 사라지고 관은 부서진데다가 무덤에서 산 아래로 길게 파 내려간 흔적까지 발견된다. 이들은 수상한 흔적을 따라가다 갈대가 빼곡한 언뜻 속에서 거대한 용이 밧줄에 묶여 꿈들

완만한 경사의 데크 조성 ‘무장애 숲길’ 서울 정도 600년 기념 팔각정 ‘용왕정’ 불공 드렸던 호랑이 모양의 ‘범바위’도

거리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목격한다. 언뜻을 에워싼 군사들은 활과 창으로 용을 공격한다. 그렇게 용은 힘도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훗날 박씨 노인의 유언이 지켜졌으면 왕의 꿈처럼 용이 힘센 장수로 변신해 한 나라의 수장이 됐을 것이라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며 엄지산은 왕을 상징하는 ‘용(龍)’자와 ‘왕(王)’자를 합쳐 용왕산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엄지산은 이름에 ‘왕’자가 포함된 왕령산, 왕재산으로도 일컬어졌다.

◆용왕정·황톳길서 놀멍쉬멍

다목적운동장 한켠엔 언뜻과 같이 둥글게 담이 둘러 맨발황톳길이 마련됐다. 안타깝게도 이날은 황토 위에 얇게 얼음이 덮여 있어서 황토 체험장을 이용할 수 없었다. 황톳길 옆엔 유리 온실처럼 생긴 쉼터가 설치됐다. 쉼터는 여가를 즐기러 온 노인들로 붐볐다. 할아버지들은 이곳에 웅기종기 모여 앉아 수다를 떨거나 장기를 뒀다.

쉼터 뒤로 난 갖길을 따라 용왕정으로 갔다. 용왕산 정상에 있는 용왕정은 1994년 서울 정도 600년(1394~1994)을 기념해 세워진 팔각형 정자로, 조선 중기 건축 형태로 건립됐다. 정자에 올라 한강 풍광을 감상했다. 해가 짙은 날엔 남산서울타워와 롯데월드타워도 보인다고 들었는데 아쉽게도 이날은 안개가 가득해 가시거리가 짧아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를 볼 수 없었다.

용왕산에는 호랑이 모양을 한 ‘범바위’도 있다. 세월이 흐르며 지물명이 ‘봉바위’로 바뀌었는데, 자식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불공을 드린 후 효험을 봤다는 말이 전해진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바스타비 **잡**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원해진 멀티골’ 이재성, 분데스리가 14라운드 ‘이주의 팀’
▲젊은 선수 활약에 활짝... ‘주장’ 손흥민 ‘모두가 제 역할, 자랑스러워’ /사진 뉴시스

▲여자친구, 데뷔 10주년 콘서트 1회 추가...3회 7500명 규모
▲‘슈퍼맨’ 2025년 7월 복귀...제임스 건 연출·각본



▲두산 떠난 제러드 영, 뉴욕 메츠와 메이저리그 계약
▲맘마미아, 렌트 온다...2025 신시컴 퍼니 라인업 /사진 뉴시스

Q LG의 AI / 바이오 기술에 바라는 게 있나요?

내 인생 앞으로도 땡땡!

로드 사이클 매니아 이동석 님은 오래도록 건강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기를 꿈꿉니다. LG는 AI 기반 바이오 기술로 신약개발의 속도를 높여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매니아
28세 이동석 님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